

DONG-A UNIVERSITY since 1946



Dong-A University Newsletter Vol. 122

동아는 지금

Issue Focus 학기 주요 소식
Hot News 주요 행사·인물 동정
Dong-A People 동아인 인터뷰
Happy Donation 발전기금 소식

동아대 부민캠퍼스 석당박물관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은 부산에서 가장 많은 국가지정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장품의 수준과 가치 또한 매우 뛰어나다. 국보로 지정된 심지백 개국원종공신녹권과 동궐도(1995)를 비롯하여 보물, 국가민속유산,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유산 등 다양하고 진귀한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2009년부터 현재의 건물(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로 이전 개관 후 역사적 기억을 담은 공간인 동시에 지역문화시설로 거듭나고 있다.



04 ISSUE FOCUS

- 04 동아인, 캠퍼스에서 꿈을 현실로 만들다!
- 10 모교와 지역 사회를 위한 헌신
故 청춘 김만수 동아타이어공업(주) 회장



12, 32 ESSAY

- 12 삶을 반추할 영화 한 편
- 32 도담한 우리 문화유산
(석당박물관 소장)

동아는 지금

DONG-A UNIVERSITY NEWSLETTER
2024 VOL. 122



14 HOT NEWS

- 14 '개교 77주년 기념식' 개최
- 15 3주기 대학기관 평가인증 전 영역 인증 획득
- 16 연구실 넘어 사업화까지 지역 산학협력 허브 역할 강화
- 17 외국인 유학생 1,500명 돌파 유학생 유치 및 교류 강화 위한 다양한 행사 개최
- 18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취업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 활발히 진행
- 19 구성원 및 시민 위한 명사초청 특강-인문학 콘서트 성황리 개최
- 20 교수들, 정부와 학회 수상 활약
- 21 학술교류 세미나-캡스톤 디자인 대회 등 국제 행사 열려
- 22 학부생 및 대학원생, 각종 대회 수상 활약
- 23 산악회 남극 등정 성공 7대륙 최고봉 등정 피날레 완성



24 DONG-A PEOPLE

- 24 대학원 국제법무학과 조동제 교수
- 26 JTBC 최강야구 최강몬스터즈 동문 김성근 야구감독
- 28 태권도시범단
- 30 로스쿨 13기 검사 합격자 정희재, 김경진, 천영환, 이승택



34 HAPPY DONATION

- 34 발전기금 기부뉴스
- 39 발전기금 기부현황/후원의 집 소개
- 42 후원 신청서 / DONG-A SNS

동아대학교 소식지(통권 제 122호)

발행일 2024년 3월
 발행인 이해우
 발행처 동아대학교 대외국제처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550번길 37(하단동)
 T 051)200-6042~3 F 051)200-6015
 www.donga.ac.kr/fund.donga.ac.kr
 디자인 디자인플랫폼 051)202-9201

동아는 지금 제호 소개

동아대학교가 설립되기 10년 전 1937년 프랑스는 아르데코(art deco) 기를 맞고 있었다. 그 당시 프랑스를 대표하는 서체로 인정한 '페노(Peignot)'는 1937년 파리 국제 박람회의 공식 서체로 지정된 오랜 역사의 서체로, 일정한 굵기 대신 획의 차이가 분명한 휴머니스트 산세리프에 가까운 서체이다. 직선과 곡선이 잘 어우러진 페노 서체의 특징을 한글에 접목해 '동아는 지금'의 오리지널 제호를 개발했다. 동아대학교의 오랜 역사를 담으면서도 현대적인 세련미를 녹여냈다. (제작: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김재홍)

Issue Focus ①

동아인, 캠퍼스에서 꿈을 현실로 만들다!

'캠퍼스'는 단순히 대학 부지라는 물리적 공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영어단어 Campus의 어원인 라틴어 Campus(캠푸스)의 뜻은 '들판'이다. 넓은 들을 이룬 벌판에서 자유로움과 창의력이라는 이미지를 쉽게 연상할 수 있듯, 캠퍼스는 넓게 뻗어나갈 수 있는 관념적으로 열린 공간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는 캠퍼스를 대학의 전통과 문화가 깃든 공간, 구성원이 만들어 가는 살아 있는 공간으로 여기는 것이다.

동아대학교는 넓은 캠퍼스(2023년 대학정보공시 기준, 보유면적 1,417,562㎡)를 보유하고 있고 이와 같은 장점을 십분 살려 창의 융합형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 교내 시설 확충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런 시설들은 연구·강의·학습·진로 등 다방면으로 쓰이고 있는데, 무엇보다 학교 설립자 석당 정재환 선생의 교육철학인 '동좌문도(同坐問道, 스승과 제자가 함께 앉아 이치를 문답하다)' 정신처럼 캠퍼스 문화를 구성원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



아이디어를 현실에 구현하다 메이커 스페이스

공학교육혁신센터 | 문의 051-200-6689

메이커 스페이스 IDEA(Innovative Design for Engineering Achievement) Lab은 기존 전공 교과목 위주의 제한적인 실습 활동에서 벗어나 창의적 설계 및 제작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 공간이다. 공대1호관 지상 1층과 지하 1층 등 두 개 층으로 구성된 이곳은 학생들의 다양한 시제품 제작, 제품홍보물 제작, 교내외 경진대회 준비 활동 등을 지원한다. 창의적인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공간, 아이디어를 현실에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제품 제작 공간, 그리고 이를 활용한 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 등이 마련돼 있다.

특히 동아대가 일본·대만 학생들과 함께한 '2023 국제 캡스톤디자인 캠프&콘테스트'(2023. 8. 13. ~ 8. 20.)를 개최했을 때 '메이커 스페이스'를 적극 활용해 참가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메이커 활동을 지원하면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기도 했다.

공간 구성

- 
3D프린터실
 3D프린터를 활용해 아이디어를 손쉽게 빠르게 입체 형태로 출력, 제작할 수 있다.
- 
레이저가공실
 CO2 레이저 커팅기를 활용해 2D 형상 디자인을 통한 비금속 재료 가공이 가능하다.
- 
전자공학실
 전기/전자 관련 도구(전기타카, DC전원공급기, 에어컴프레서 등)를 활용한 각종 실험과 제품 제작을 할 수 있다.
- 
아이디어공작실
 시제품 제작, 시뮬레이션 및 평가 등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 
도장실
 제품의 디자인에 맞는 컬러를 선정해 직접 도색 가공해 볼 수 있다.
- 
디자인씽킹룸
 다목적 교육실의 형태로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한 과정을 지원한다.
- 
촬영스튜디오
 제품 홍보 및 자료 제작을 위한 사진·동영상 촬영 공간으로 롤스크린 배경 등이 준비돼 있다.
- 
창업실
 7개실로 구성돼 있으며 팀별 제작 활동 및 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회의 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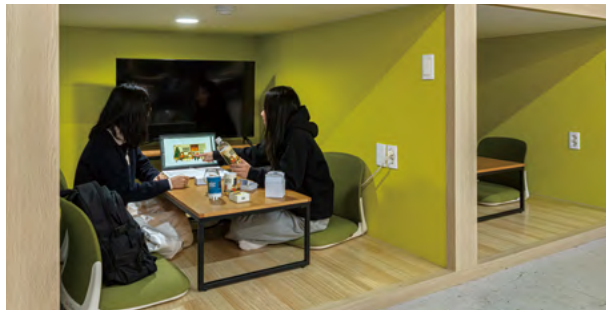


산업디자인을 위한 종합 플랫폼 창의오아시스 플랫폼

디자인환경대학 산업디자인학과 | 문의 051-200-7980

디자이너로서 창의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선 그에 맞는 공간이 필요하다. 사람은 다양한 형태로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혀 보거나 듣지 못한 것을 창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해외 유명 디자인 스쿨들이 '디자인적인 사고를 가능케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결코 다른 이유가 아니다.

예술체육대학2관(S17) 7층에 위치한 창의오아시스 플랫폼은 계단식 복층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조별 작업을 위한 원형 테이블과 개인 작업을 위한 1인용 테이블, 편안한 소파가 있는 이곳은 주로 베이지와 네이비 톤으로 세련되면서 자유로운 분위기를 갖고 있다. 프로젝트와 스크린, 음향 시설 등이 구비돼 있어 정규 강의는 물론 디자인 전문가 특강, 워크숍, 방학 비교과 프로그램, 졸업 전시, 교수회의, 학생 자체 활동 등에 활용된다. 정기구독하는 디자인 서적도 비치돼 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24시간 개방하고 모든 학년과 전공의 학생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점이다.



사용 용도

- 매년 10월경 산업디자인학과 졸업작품전을 연다. 브랜딩과 프로모션, UX/UI, 공간, 제품, 가구, 서비스 디자인 등 수준 높은 작품을 실물 포스터와 모니터 송출 영상 등으로 전시했다.
- 최신 트렌드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한 산업디자인 꿈나무를 위한 실무 워크숍이 하계·동계 방학에 열린다. 디자인 현장에 있는 전문가를 초빙해 블렌더 3D 기초 워크숍, 인포그래픽 제작 워크숍, 스케치업 활용 워크숍 등 트렌디한 디자인 작업을 3~4일간 할 수 있다.
- 수시로 전문가 특강이 개최된다. 2023년 10월에는 산업디자인계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는 애플(APPLE) 본사 김희준 디자이너의 특강 '피자집에서 전단지 만들려다 실리콘밸리의 디자이너가 되기까지'가 열려 많은 호응을 받았다.

심리검사로 해소하는 진로 고민 진로카페 진담

교육혁신원 진로개발센터 | 문의 051-200-6696-7

한 취업사이트의 설문조사 결과 대학생 응답자의 절반이 진로에 대해 '아직 고민 중'으로 답했다고 한다. 고도화·다변화된 사회에서 직업군은 다양해졌고 진로 선택에 실패했을 때 재도전하기 어려운 환경이 된 만큼 선택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것이다. 학업과 진로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승학캠퍼스 학생회관(S02) 3층에 진로카페 진담이 있다. 취업을 향상과 중도 탈락 학생 예방, 지역사회 연계 사업을 통한 지역발전 이바지 등 역할도 있지만, 언제나 손쉽게 찾아와 진로에 대해 탐색할 수 있는 학생 중심 공간을 지향하는 만큼 관계자 모두가 방문하는 학생을 두 팔 벌려 맞이하는 분위기다.

진로동아리, 진로또래멘토링 등 다양한 진로프로그램 활동이 있고 진로와 관련된 워크숍, 교육, 세미나도 진행된다. 학생들에게 친숙한 형태의 심리검사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고 원하는 경우 해석 상담도 지원하니, 혼자 고민하지 말고 진담의 문을 두드려 보는 건 어떨까.

프로그램

- **진로 심리검사** STRONG 직업흥미검사, Holland 적성탐색검사
- **학습 심리검사** MLST-II 학습전략검사, U&I 학습진로종합검사
- **성격 심리검사** MBTI 성격유형검사, 에니어그램 성격유형검사, CST 성격강점검사
- **진로동아리** 신입생 진로동아리, 재학생 진로동아리 참여 학생들이 학기별 진로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 **멘토링** 고등학생과 대학생 간 '지역연계진로멘토링'과 같은 대학생끼리 하는 '진로또래멘토링'을 위한 강의 시연, 멘토링 공간 등으로 활용된다.
- **세미나** 전문가 초청 진로심리검사(워크넷 직업선호도검사(L형))를 활용한 진로상담, 나를 찾아 떠나는 DISC 여행 등 전문 진로교육을 시행한다.





미래형 건강관리 서비스의 오늘을 만나다 D스퀘어 스마트헬스케어 리빙랩

건강과학대학 건강관리학과 | 문의 051-200-7528

스마트헬스케어는 의료 기술에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해 개인 맞춤형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르는 말이다. 흔히 볼 수 있는 스마트 워치도 웨어러블 기기의 일종인데, 당뇨 환자가 전용 웨어러블 기기로 혈당과 혈압을 측정해 식사와 운동 조절을 함으로써 실생활에서 손쉽게 건강관리를 하는 식이다. 이러한 기술은 예측(Predictive), 예방(Preventive), (환자)참여(Participative), 맞춤/개인화(Personalized) 의료와 건강관리를 지향하고 이를 가능케 하는 '스마트 헬스케어 전문가'는 한국고용정보원 미래 유망직업 15선에 소개되기도 했다. 동아대는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으로 '스마트 헬스케어융합전공'을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스마트헬스케어 시스템을 체험 및 연구분석할 수 있는 이러한 리빙랩은 꼭 필요한 공간이다.

한림도서관(S10) 1층에 자리한 이곳은 머리에 쓰고 손에 쥐고 얼굴에 착용하는 등 신체에 부착해 다양한 건강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들로 채워져 있다. 모바일 뇌파측정부터 가상현실 기반 재활훈련 등 헬스케어 측정을 해볼 수 있고 데이터에 기반한 정신건강 힐링 체험도 할 수 있다. 다양한 장비 경험을 통한 새로운 제품 개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 등 관련된 복합 교육이 가능하다.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리빙랩에서 실제로 테스트하고 공유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연구 장소로도 사용되고 있다.



보유 장비

- **뇌 기능 측정** 활동공간에 제약이 없는 헤드셋 타입 '모바일 뇌파측정 장비 및 AI 분석플랫폼', 다양한 임상적 이벤트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기능적 근적외 분광법(fNIRS) 뇌 기능 측정장비' 등
- **정신건강 측정** 특정 교감-부교감신경의 균형도와 활성화 및 인체 면역과 회복상태를 측정하는 '자율신경, 스트레스 진단기', 청정 산소 배출을 통해 사용자의 피로 회복과 면역력 개선을 돕는 토털 심신 케어 서비스 '산소발생 복합테라피 시스템' 등
- **가상현실 기반 시스템** 체력단련과 두뇌훈련, 헬스게임 콘텐츠가 결합된 증강현실 '실내 운동 플랫폼 디딤', 게임 기반 인지훈련 콘텐츠를 통해 교령자 및 경도인지저하자의 뇌기능 활성화와 뇌 가소성을 촉진하는 '가상현실 기반 치매예방 인지강화 솔루션', 3D공간에서 뼈·근육·혈관 등을 조작해보거나 섬세한 그래픽으로 연출한 자연 풍경을 VR로 감상할 수 있는 'VR 일체형체험기' 등
- **운동 프로그램** 기립이 어려워 자유롭게 운동하기 어려운 수술 환자나 중증장애인을 위한 운동시스템 '음파팅팅테이블', 우퍼스피커 원리를 이용해 대근육 외 인대·속근육·얼굴 근육 등에 정밀한 음파 진동을 전달하는 '음파진동운동기' 등

학습과 휴식이 공존하는 열린 공간 한림도서관

학술정보지원과, 학술정보서비스과 | 문의 051-200-6261-2

지성의 전당,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곳 중 하나는 바로 도서관이다. 동아대 도서관 역사의 시작은 1949년 구덕캠퍼스에서부터다. 이후 1985년 제2도서관이던 현 한림도서관이 중앙도서관이 되는 등의 변화 속에서 대학의 학문적 성장과 발전 곁에는 항상 도서관이 있었다.

2022년 리모델링 재개관을 통해 '자유로운 탐구와 다양한 창의적 경험을 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한림도서관은 2층 로비부터 남다르다. 밝고 따뜻하며 개방적인 구조는 마치 어느 카페를 옮겨온 듯한 분위기라 학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선다.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도서나 북큐레이션으로 제공하는 도서가 전시돼 학과 공부 중에 머리를 식히거나 가벼운 대화를 주고 받기 좋다. 열람실에 가기 위해 지나치는 공간일 뿐이던 로비가 도서관의 얼굴 노릇을 톡톡히 하는 셈이다.



공간 구성

- **창의공간** 경직된 분위기를 벗어나 휴식과 학습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전자정보박람회, 공모전 등 다양한 행사도 진행된다.
- **스마트존** 각종 휴대기기를 활용하면서 개별 충전이 가능한 스마트 학습 공간으로 학생들의 니즈를 충족한다.
- **북갤러리** 북큐레이션 공간으로 독서문화프로그램이 진행된다.
- **정보활용교육실** 온·오프라인 도서관 정기교육이 진행되고 학부와 대학원 실습수업 강의실로 상시 활용된다.

첨단교육과 취업을 위한 모든 것 교수회관 인스파이어홀

취업지원실 | 문의 051-200-6222-4

교수회관(S08) 3층 인스파이어홀은 '다목적 스마트 강의실'로, LINC+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교육환경 개선 사업의 하나로 구축됐다. 건강과학대학과 스마트헬스케어융합전공을 위한 첨단교육 구현 장소인 동시에 취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설명회와 교육을 진행한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벽면을 가득 채운 메가스크린이다.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N-Screen(클라우드 컴퓨팅에 기반해 다양한 장치에서 연속적으로 공통된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능)을 기반으로 새로운 방식의 교육이 가능하게 조성됐고 고급 음향시설과 자동 녹화 시스템도 갖췄다. 191석(컴퓨터 수업용 50석 /좌석 의자 90석 /간이의자 51석) 규모에서 하이브리드 수업, 리빙랩 기반 수업, 마이크로 모듈 기반 혁신 교육 등이 가능하다.



사용 용도

- 취업의 꽃이라 불리는 채용설명회가 이곳에서 열린다. 2023년 9월에만 풍산(9/6), 포스코·포스코퓨처엠(9/12), 삼성중공업(9/13), 한미약품(9/14), 삼성에스원(9/15), 한국항공우주(9/21)와 같은 기업의 설명회가 열려 채용 꿀팁과 직무 상담 등 기회를 제공했다.
- 반도체, 항공우주·방산 및 로봇틱스 등 산업 직무별 취업교육과정이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 건강과학대학에서 강의실로 활용하고 있다. 건강관리학과, 식품영양학과 강의를 각각 열린다.

Issue Focus ②

모교와 지역 사회를 위한 헌신
청춘 김만수
동아타이어공업(주)
회장

고인은 1930년 12월 경남 산청에서 태어났다. 동아대 건축토목과를 졸업하고 1971년 자동차용 튜브·타이어를 생산하는 동아타이어공업(주)를 창립했다. 내실 경영과 연구개발에 주력, 안정적인 성장을 이룩하며 2017년 코스피에 상장되는 우량 중견기업으로 도약했다. '모교의 명예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회사를 키워나가겠다'는 말과 '동아'라는 사명에서 학교를 향한 고인의 애정이 특별했음을 알 수 있다.

1996년 사재 10억 원을 출연해 자신의 호를 따 청춘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장학사업과 학술지원 사업을 통해 인재 양성에 기여했다. 동아대 교내외 장학금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청춘장학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1,300여 명의 학생과 교수에게 장학금과 연구비 28억 원, 로스쿨 장학금 10억 원, 청춘홀 리모델링 기금 2억 원 등 모교의 발전을 염원하며 기부한 금액은 재단 장학사업을 포함해 110억 원에 달한다.

특히 고인은 향후 회사의 중책을 맡길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재학생 일부를 선발해 등록금 일체를 지급하는 것은 물론 졸업 후 동아타이어공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모교에 대한 지극한 마음과 더불어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을 중요시하는 기업가 정신, 모교 후배들이 국가 발전을 선도할 중요한 인재로 성장하길 원하는 바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고인은 동아타이어공업이 위치한 경남 양산의 소년소녀가장과 홀로 사는 어르신 등 불우이웃을 위해 총 15억 원을 쾌척하는 등 지역 사회에도 귀감이 됐다.



“ 큰 강물의 흐름을 보면 원류인 깊은 샘을 생각하고
 번성한 가지를 보면 그 뿌리의 본방향을 알 수 있다.
 눈은 들길을 걷는 나그네여 그대 갈팡질팡 걷지 마라.
 오늘 그대의 발자국은 뒷날 후손들에게 이정표가 되리라 ”

- 故 청춘 김만수 동아타이어 회장

삶을 반추할 영화 한 편

내 광패같은 애인 김광식 감독

손담비 노래 '토요일 밤에'를 부르라고 시킨다. 세진(정유미 분)은 면접장에서 마지못해 일어나 어설피게 몸을 흔든다. 면접관들은 웃음을 참지 못한다. 세진은 밖으로 나가며 "원래 면접을 이런 식으로 보냐"고 따진다. 눈물이 흘러도 "이런 식으로 사람을 갖고 노느냐"며 "약자라 해도 인간적인 대우는 해줘야 한다"고 당당히 쏘아붙인다.

영화에서 세진은 깡이 센 '취준생'이다. 열심히 노력한 그는 고향을 떠났고, 서울에서 기죽지 않고 취업 도전을 이어간다. 반지하 방에 이사까지 갔는데 하필 앞집에는 삼류 건달 동철(박중훈 분)이 산다. 어설피 광패 같은 그는 세진을 '옆방여자'라고 부르며 계속해서 아는 척을 한다. 그를 벌레 보듯 쳐다보던 세진은 어느 순간 위로를 받게 되고, 마음을 열게 된다.

영화는 청년 취업난과 사회적 현실을 자연스럽게 담아낸 로맨틱 코미디다. 일단 행동에 옮기고 보는 동철은 투박해 보여도 누구보다 세진의 아픔을 잘 달래준다. 기존 누아르 영화에서 보던 '광패의 사랑'과는 다른 매력을 엿볼 수 있다. 두 배우가 훌륭한 연기를 선보이고, 이 시대에도 이야기는 여전히 가슴에 와닿는다. 우여곡절 끝에 자리를 잡은 세진이 후배 신입사원들에게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라고 말하는 장면은 따뜻하게 다가온다. 2010년 개봉했다.

프란시스 하 노아바움백 감독

끝까지 흑백 화면으로 이어지는 청춘 영화다. 꿈을 좇는 프란시스(그레타 거윅 분)에 빠지다 보면, 굳이 화면에 다양한 색깔이 없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영화에서 프란시스는 뉴욕 브루클린 작은 아파트에 사는 27살 여성이다. 뉴욕을 대표하는 현대 무용수가 되겠다는 큰 꿈을 꾸지만, 현실은 수년째 평범한 연습생이다. 그는 고양이를 입양하려던 남자친구에게 동거 제안을 받는다. 하지만 프란시스는 친구 소피와 계속 살아야 한다고 대답하고, 둘은 말다툼 끝에 헤어진다. 그런데 정작 소피는 독립을 선언하며 다른 친구인 리사와 살겠다고 말을 꺼낸다.

일과 사랑과 우정까지 쉽지 않은 프란시스는 그래도 홀로서기에 나선다. 여기저기 떠돌던 그는 잠시 프랑스 파리에 머물기도 한다. 뉴욕에서는 도심을 뛰어다니거나 다른 일을 하며 다양한 사람도 만난다.

무용을 멈추지 않은 프란시스는 자신만의 공연을 선보인다. "정말 흥미롭고 너다운 훌륭한 작품"이라며 "솔직히 말해서 오늘 감탄했다"는 찬사도 듣는다. 공연장을 찾아온 소피를 보며 웃음을 보이기도 한다. 현실에서 모든 걸 지킬 수 없더라도 앞으로 새롭게 나아가야 하는 청춘들이 공감할 영화다. 2014년 한국에 개봉했다.

소공녀 전고운 감독

소중한 것을 지키며 살아간다. 영화에서 이것저것 종이에 계산을 하던 미소(이솜 분). 곧 결심한 듯 어느 문을 두드린다. 집주인을 만난 그는 "저 집 뺄게요. 이것저것 다 올라가니 어쩔 수가 없네요"라고 말한다.

일당으로 살아가는 그가 과감히 아끼려 한 건 월세다. 밥값, 약값, 세금은 어쩔 수 없이 지출해야 하는 항목이다. 대신 집을 포기한다. 그런데 미소는 매일 위스키를 마시고, 담배를 사는 비용은 줄이지 않는다. 집을 두는 것보다 그 둘을 계속 즐기는 게 미소에게 더 중요하다.

미소는 하루에 위스키 한 잔, 담배 한 모금 그리고 사랑하는 남자친구만 있으면 더 바랄 게 없는 사람이다. 3년 차 가사도우미인 그는 도심을 떠돌며 낯날을 보내기 시작한다. 아는 친구와 언니뿐 아니라 남자 동생 집을 찾아가 하루하루 신세를 진다. 대신 맛있는 집밥을 선사하며 집안일을 조금씩 돕는다.

어느 날 남자친구 한술(안재홍 분)이 해외로 떠나겠다고 입을 뗀다. 미소는 "난 이대로그가 좋은데"라고 투정을 부리면서도 일하러 가겠다는 그를 보내준다. 그렇게 중요한 안식처 중 하나를 잠시 떠나보내지만, 미소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관객에게 선사한다. 중요하고 소중한 것에 대한 고민이 들 때 보기 좋은 영화다. 2018년 영화관에서 관객을 만났다.

죽은 시인의 사회 피터 위어 감독

대학생도 훌륭한 선생이 필요한 건 마찬가지다. 진심으로 위로가 되는 스승을 만나는 건 행운이다. 영화 속 키팅(로빈 윌리엄스 분) 선생은 다양한 가치를 알려주는 '영원한 캡틴'이다. 학생들과 소통하며 그리는 이야기는 시대를 넘어 큰 위로가 된다.

영화는 입시 명문 학교 웰튼 아카데미가 배경이다. 공부가 곧 인생인 학생들은 아이비리그에 가려고 고군분투한다. 새롭게 부임한 영어 교사 '키팅'은 자신을 선생이 아닌 '캡틴'이라 불러도 좋다고 제안한다. 특히 선생은 '가능할 때 장미꽃 봉오리를 거두라'고 가르친다. 라틴어로 '카르페 디엠, 즉 '기회를 잡아라'는 뜻이다. 언젠가 숨을 멈추고 죽게 되는 우리가 무엇을 중요시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키팅이 선사한 독특한 수업 덕에 학생들은 인생에 공부가 전부 가 아닌란 걸 깨닫게 된다. 다른 선생들은 기존 틀을 깨는 건 시간 낭비라고 단정 짓지만, 학생들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

수십 년이 지난 영화이지만 대학 진학에 목숨을 거는 한국 사회에 여전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직 소중한 가치를 찾는 게 어려운 대학생이라면, 키팅 선생님 강의 들듯 영화를 봐도 나쁘지 않을 듯하다.

'개교 77주년 기념식' 개최



- | | | |
|---|---|---|
| 1 | 2 | 1) 지난해 10월 31일 오전 동아대 부민캠퍼스 다우홀에서 열린 '개교 77주년 기념식'
2) '공로상'을 수상한 이석환(맨 왼쪽)·최정호(맨 오른쪽) 교수가 이해우 총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승철 교수는 진료 관계로 참석하지 못함)
3) '석당학술상'을 수상한 장정환(맨 왼쪽)·류민호(맨 오른쪽) 교수가 이해우 총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 | 3 | |

동아대학교는 '개교 77주년 기념식'을 10월 31일, 오전 부민 캠퍼스 다우홀에서 교직원과 학교법인 관계자, 동문, 표창 수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 총장은 "올해 동아대는 정년이 보장되는 산학전문인력 최초 임용과 동아브랜드 동감 와인 개발 등으로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이라는 이미지가 더 강해졌다"며 "산학협력 수익도 700억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측돼 우리 대학이 산학협력 현대학으로 공고히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또 "여러 건의 국책사업 유치와 외국인 유학생 유치 실적 대폭 상승 등 학교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동아 가족 여러분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오늘 여러분이 쓰고 있는 역사가 바로 동아대의 역사가 될 것이니 모두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자"고 말했다.

사회 각 분야에서 모교를 빛낸 동문에게 수여하는 '자랑스러운 동아인상' 영예는 신한춘 부산광역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과 한호중 유카로오토모빌(주) 회장이 안았다. 탁월한 연구업적으로 대학 발전에 이바지한 교원에게 시상하는 석당학술상은 장정환(전기공학과)·류민호(경영정보학과) 교수가 수상했다. 장 교수는 액추에이터와 센서 분야를 중심으로 한 메카트로닉스 연구 등에서 최근 5년간 책임저자로 SCI급 논문 24편을 발표했고 JCR 랭킹 상위 10% 논문 6편을 포함, 심사대상 연구실적물 10편 평균 순위 12.56%로 우수한 성과를 냈다. 류 교수는 데이터 기반 기업 및 서비스 혁신 분야 등에서 최근 5년간 책임저자로 SSCI 논

문 6편을 발표했고 JCR 랭킹 상위 10% 논문 4편을 포함, 심사대상 연구실적물 6편 평균 순위 14.04%를 기록했다.

이석환(컴퓨터공학과)·최정호(조선해양공학과)·이승철(의학과) 교수는 공로상을 받았다. 이석환 교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2023년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에 선정되는 데 총괄책임자로 역할을 수행했다. 오는 2030년까지 194억여 원을 지원받아 AI/SW 인재양성, 지역산업협력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 교수는 교육부 주관 '2023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주관대학 사업단장으로 미래산업 인재 육성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기틀을 마련했다. 이 교수는 신경근·통증관리 등 마취통증의학 전반에 걸친 폭넓은 학술활동과 임상실적, 마취통증의학 부문 강의·임상술기에 대한 지도로 많은 학생이 의사국가고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게 일조했다.

또, 나서희(의예과) 교수 등 5명의 교원과 류윤아(보건진료소) 직원은 30년 근속상을, 박환태(중개과학과) 교수 등 10명의 교원과 이인용(클린에너지융합부품소재사업단) 실장 등 7명의 직원은 20년 근속상을 받았다. 김보길(안전관리센터)·박영후(학사관리과)·박중현(기획과)·류지희·박경렬(교육연구정책실) 등 5명은 '모범직원상'을, 최선미(교육연구정책실)·권성길(기획과)·김대현(대외협력과)·남승덕(학예연구과) 등 4명은 '올해의 직원상'을 받았다.

동아대, 개교 77주년 기념 '자랑스러운 동아인' 선정



▲ 왼쪽부터 신한춘 부산광역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 이해우 총장, 한호중 유카로오토모빌(주) 회장

동아대는 개교 77주년 기념 '자랑스러운 동아인상' 수상자로 신한춘 부산광역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과 한호중 유카로오토모빌(주) 회장을 선정, 개교기념식에서 시상했다.

신 이사장은 동아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석사(MBA) 학위와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금정화운과 신흥중기(주) 대표이사, (주)울산물류터미널 회장, 한국자유총연맹 부산시지부 회장을 맡고 있으며 (사)부산컨트리클럽 이사장과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회장을 역임했다. 그는 지난 2006년 5월부터 부산광역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을 지내며 지역사회 발전과 모교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고 있다. 석탑산업훈장(2006)과 대통령 표창(2010), 국민훈장 석류장(2018)을 받기도 했다.

동아대 잠사학과 83학번인 한 회장은 지난 8월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석사(MBA) 학위를 받았다. 자동차 세일즈맨에서 시작해 부산-경남 아우디·폭스바겐 공식 딜러사인 유카로오토모빌(주)을 운영하는 등 경영인들의 롤모델로 꼽히고 있다. 그는 지역 이동시설 정기후원 등 사회봉사에도 앞장서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 명문기업' 가입, 대한적십자 회원 명예유공장 수상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MBA 원우회장도 맡았으며 경영대학 교역 릴레이 기부자 모임 디챔버(D-Chamber)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동아대, 3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전 영역 '인증' 획득



▲ 동아대 승학캠퍼스 전경

동아대는 3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에서 5개 평가영역 기준을 충족(Pass)하는 우수한 결과로 '인증' 자격을 획득했다.

이로써 동아대는 지난 1주기(2013년)와 2주기(2019년)에 이어 3주기(2023년)까지 '인증' 자격을 획득,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인증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평가는 5개 평가영역과 30개 평가준거로 구성됐으며 서면평가와 현지 방문평가를 통해 진행됐다.

동아대는 이번 대학기관평가인증 △1영역 '대학이념 및 경영' △2영역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3영역 '교원 및 직원' △4영역 '학생지원 및 시설' △5영역 '대학성과 및 사회적 책무' 총 5개 평가 영역에서 모두 '충족(Pass)' 판정을 받아 인증자격을 획득했다.

동아대는 이번 인증자격 획득을 바탕으로 대학혁신지원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대학기관평가인증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병설 한국대학평가기원이 제시한 인증기준에 따라 실시된다. 대학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기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판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 사회적 신뢰를 부여하는 제도다.

특히 2025학년도부터는 재정건전대학 및 기관평가인증을 획득한 대학을 대상으로 국가장학금 지원, 학자금 대출 및 재정지원사업의 참여 자격이 부여되는 만큼 어느 때보다 대학기관평가인증 획득 중요성이 커졌다.

이해우 총장은 "이번 3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획득은 모든 대학 구성원의 헌신과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지역을 대표하는 거점사립대학으로 대학경쟁력 향상과 함께 지역과 동반성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2023년 하반기 대학기관평가인증에는 56개 대학이 신청했으며 49개 대학이 '인증'을 획득, 5개 대학은 '조건부 인증', 2개 대학은 각각 '인증 유예'와 '불인증' 평가를 받았다.

연구실 넘어 사업화까지
지역 산학협력 허브 역할 강화



▲ 기술사업화 플랫폼(<https://research.donga.ac.kr/>)

동아대가 산학협력단과 LINC 3.0사업단을 중심으로 지역 산학협력의 허브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 및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사업화 플랫폼' 서비스를 오픈했다. 우수한 기술들이 사장되지 않고 적시에 기업에 연결될 수 있도록 대학의 연구성과(특허·논문·연구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공개, 지역 산학협력 허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홈페이지 리뉴얼이다.

이번에 리뉴얼한 기술사업화 플랫폼에서는 기업이 희망하는 기술 키워드를 기반으로 DB별 검색이 가능하고 검색 결과에 따라 기술 매칭 게시판을 통해 매칭·상담신청도 할 수 있다.

산학협력단은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기술나눔' 업무협약을 맺고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도 이전한다. 기술나눔은 대학·공공연·대기업에서 보유한 기술을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하고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부·KIAT에서 2013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동아대는 나눔 협약으로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 미활용 특허 기술이전을 추진기로 했다. 주요 특허는 '직선형 글로벌 밸브(기계 분야)', '기장 종자의 발아 촉진 방법(식품바이오 분야)' 등 모두 6건이다.

부산 산학협력센터와 부산지역 대학·연구기관이 함께하는 '2023 산학 기술 매칭 로드쇼'에 동아대 LINC 3.0 사업단 및 교원들이 참가했다. 부산광역시·부산테크노파크 등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산학 협력 기반 조성과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교류의 장이 됐으며, 기업 애로 해결을 위한 대학 연구역량 매칭 및 기술혁신 유도, 지역혁신 기관 연계 지원 프로세스 확립과 사업화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LINC 3.0 연계 1대 1 산학협력 상담을 위한 '연구자 상담', 공공기술 1대 1 기술이전 매칭을 위한 '공공기술 상담', 산학협력 성과 도출을 위한 1대 1 컨설팅 '혁신기관 상담', 우수 유망기술 소개 자료를 전시한 '포스터 Section', 산학협력 기술을 전시한 '기술전시회' 등으로 구성됐다.

'전력반도체 분야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네트워킹 및 발대식' 개최



▲ 동아대 '전력반도체 분야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네트워킹 및 발대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아대는 승학캠퍼스 대회의실에서 '전력(파워)반도체 분야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네트워킹 및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해우 총장과 김성재 산학협력단장, 심대용(전 SK하이닉스 차량용반도체 사업담당 부사장) 전자공학과 교수 등 전력반도체 분야 특성화 추진단 관계자들, 대학본부 보직자, 이동재 (주)키파운드리 대표, 이경덕 부산광역시 미래산업국장, 김영부 (재)부산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 최영춘 부산산학융합원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에선 동아대 '전력반도체 분야 육성 및 사업추진단(단장 심대용 교수)' 소개, 사업추진 계획 발표 및 전문가 네트워킹 시간을 가졌다. 동아대는 올해 전국 최초로 반도체 분야 전문가를 '산학 전임교원(정년트랙)'으로 임용, 국가 기간산업이자 부산시 권역별 5대 혁신클러스터의 한 축인 전력반도체 분야 인재 육성과 산학협력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이 총장은 "고도첨단기술로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미래성장 동력인 반도체 분야 맞춤형 전문인력양성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성공적인 산학협력 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산학협력단,
'2023 연구지원체계평가' A등급 획득

산학협력단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주관 '2023년 연구지원체계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연구지원체계평가의 과기정통부와 KISTEP이 신청 대학을 대상으로 연구지원 체계성과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2년마다 시행하는 연구지원체계 종합평가 제도다. 이번 평가대상은 연구지원 기능을 보유한 대학 가운데 모두 161개 신청 대학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산학협력단은 이번 평가에서 전 분야에 걸쳐 우수한 점수로 A등급을 얻었다. 평가지표는 △연구지원조직 운영역량 △연구자 처우개선 정도 △연구비 집행 투명성 △연구제도 운영 합리성 △연구자 애로사항 모니터링 등 크게 5개 항목이었다.

김성재 단장은 "A등급을 받은 것은 연구자 연구 활동에 대한 지원 역량이 크게 높다는 것을 뜻한다"며 "연구자의 원활한 연구 활동과 투명한 연구비 집행 등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유학생 1,500명 돌파
유학생 유치 및 교류 강화 위한
다양한 행사 개최

동아대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교류 강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열었다. 동아대는 코로나19 이후 선제적인 유치 활동으로 어학연수생이 대폭 증가했고 대학원 신입생 증가세도 두드러지며 올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 실적이 반등했다. 2년 전 800명대에 머물렀던 유학생 수가 2023년엔 1,500명을 넘어 국제화 발전전략 목표를 1년 일찍 달성하는 기쁨을 토했다.

11월 9일에는 외국인 유학생과 함께하는 '2023 인터내셔널 데이(International Day)' 행사를 개최했다. 부민캠퍼스 중앙광장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 한국을 비롯 중국과 베트남,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미얀마, 모로코, 타지키스탄, 방글라데시, 필리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독일, 스페인, 아프리카 등 16개국 출신 유학생들이 부스를 마련해 국가별 전통음식 및 전통의상, 전통놀이 체험 등 문화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학생들이 준비한 베트남 노래와 댄스, 우즈베키스탄 노래, 필리핀 티니클링(민속춤), 인도 전통댄스 등 국가별 공연도 눈길을 끌었다. 동아대 응원단과 댄스동아리 '가리온', 21년차 베테랑 권혁민 미술사의 매직쇼도 펼쳐졌다.

대외국제처는 '2024학년도 전기 학부 외국인 신(편)입학 설명회'를 개최했다. 동아대 한국어학당에 재학 중인 어학연수생을 대상으로 열린 입학설명회는 담당자가 각 교실로 직접 찾아가는 형식으로 대학의 각종 현황, 입시 주요 일정 및 장학제도 등 입학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번 입학 설명회를 통해 동문네트워크 소개 및 다양한 분야 취업 사례 등을 바탕으로 진로지원 가이드를 제시했다. 특히 베트남 소재 한국 대기업에 취업한 졸업생의 '온라인 취업 후기 발표'에선 실질적인 유학생할 및 취업준비에 대한 경험담을 공유,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동아대 2023학년도 2학기 GKS(정부초청) 대학원 선정 장학생은 부산·경남지역 사립대 최다인 28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지방 사립대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수치기도 하다. 정부초청 장학제도의인 GKS(Global Korea Scholarship)는 외국인 학생에게 대한민국 고등교육기관에서 수학할 기회를 부여, 국제교육 교류를 촉진하고 국가 간 우호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대학전형과 재외공관전형 두 가지 전형으로 이뤄지며 선발된 외국인 장학생엔겐 학비, 항공료, 생활비, 보험료, 정착지원금 등 유학 전반 비용을 국비로 지원한다.

동아대는 한국관광공사의 '한국 유학 활성화를 위한 한국 주요 대학교 대상 미디어 팸투어'에도 참가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최근 몇 년간 베트남 내 한국 유학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한국관광공사 하노이 지사 주관으로 기획 및 진행됐다.

이해우 총장은 동아대를 방문한 5개의 베트남 언론 기관(Government News, Education Times, Promotion & Family, Vietcetera, Kenh14) 기자단을 만나 동아대 베트남 유학생 현황을 공유하고 다양한 유학생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동아대를 방문한 베트남 기자단은 캠퍼스 투어 등을 통해 대학 전경 및 강의 장면을 촬영했고 베트남 유학생회 임원들과 인터뷰도 진행했다.



▲ (위) 지난 9일 부민캠퍼스 중앙광장에서 펼쳐진 '2023 인터내셔널 데이(International Day)' 행사 모습 (아래) 이해우 총장과 동아대 베트남 유학생, 베트남 언론 기관 관계자, 한국관광공사 하노이 지사 관계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제교류과 박현주 팀장·노혜림 직원,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국제교류과 박현주(왼쪽) 팀장과 노혜림 직원

국제교류과 박현주 팀장과 노혜림 직원이 '경찰청장 감사장'을 받았다. 박 팀장 등은 외국인 유학생 증가에 따른 다양한 치안 상황에 학생들의 생생한 의견을 제시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 한국 사회 정착 등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두 직원은 최근 열린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감사장을 수상했다.

동아대는 지난 5월 동아대 유학생회장단 간담회를 추진, 경찰 외사계 직원들과 교류의 장을 마련했으며 9월엔 부산 서부경찰서와 동아대 유학생 치안봉사대를 결성, 경·학 합동 순찰을 실시해 대학가 주변 범죄 예방에 기여했다. 또 동아대는 경찰서 주관 외국인 범죄피해 지원협의회에 참가, 지속적인 협업 관계를 맺으며 두 기관이 함께 유학생 대상 한국법령이해교육 및 범죄예방교실을 운영하는 모범을 보이기도 했다.

박 팀장은 "동아대 유학생들에 대한 경찰서 관심과 애정에 먼저 감사드린다. 유학생 지원 담당자로서 당연한 역할을 했을 뿐인데 큰 상을 받게 돼 책임감을 더 느낀다"며 소감을 밝혔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취업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 활발히 진행



▲ 취업 동아리 '동아 리더스 클럽(Dong-A Leaders Club)' 취업캠프 모습

동아대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 취업동아리 '동아 리더스 클럽(Dong-A Leaders Club)'은 올해 20주년을 맞아 20-2기를 모집했다. 올 상반기에도 20-1기 200명을 선발해 운영 중이며, 20-2기는 예년보다 대규모 인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동아 리더스 클럽'은 지난 2004년 만들어진 후 해마다 높은 선발 경쟁률을 기록, 학생들의 취업전선을 뚫기 위한 일종의 '별동대'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동아 리더스 클럽을 거쳐 간 졸업생은 7,000여 명에 이른다. 동아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부산경제진흥원은 공동 주관으로 '2023학년도 Dong-A 취업동아리 취업캠프'를 개최했다. 대표 취업동아리인 '동아 리더스 클럽'과 '동아 프론티어즈' 등 모두 13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취업전략 강의, 실전 모의면접, 기업체(삼성전자·현대로템 등) 재직 동문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취업준비생들에게 유익한 시간을 제공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취업준비생들의 니즈에 맞춰 이공 분야와 경영지원, 금융, 영업/마케팅, 무역물류, MICE 등으로 반을 구성해 맞춤형 캠프를 진행했다.

또, 동아대는 부산 사하구청 등과 '대학과 지자체가 함께하는 2023 사하일자리 박람회'를 가졌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경제진흥원·동아대 총동문회·동아대 총학생회 주관, 한국토익위원회 후원의 이번 행사는 동

아대 승학캠퍼스 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박람회에는 부산은행·하나은행, SK오션플랜트·현대로템, CJ제일제당·카카오 등 대기업과 대한제강, 오리엔탈정공, 선보공업, 주택금융공사, 한국거래소, 에어부산(주) 등 내실 있는 공기업 및 부산지역 우수기업이 포함됐고, 넥센타이어(대표이사 회장 강병중), 온산해운항공(대표이사 양재생) 등 동아대 동문 운영 기업도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동아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K-Move 모집 설명회'를 개최,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통한 해외 취업지원에 박차를 가했다. 지난 2014년부터 10년째 미국 글로벌 전문가 과정을 운영했으며, 누적 해외취업자 수는 500명에 달한다. 현재 4개(테크니션, 디자인, 비즈니스, 물류무역) 과정에서 49명의 학생이 교내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경영대학 주최, 학생·취업지원처 공동 주관으로 '2023년 동문과 경영대학이 함께 하는 취업전략 캠프'도 부민캠퍼스에서 개최했다. 이번 캠프에선 대기업, 공기업, 금융권 등에서 일하는 동아대 경영대학 출신 동문을 대거 강연자로 초청, 기업별 취업 특강을 펼치며 생생한 경험담을 나누고 취업 노하우를 공유했다.

동아대, 2023년 대학정보공시 기준 해외 취업자 수 전국 1위

동아대는 2023년 대학정보공시 기준 해외 취업자 수 전국 1위를 달성했다. 동아대 해외 취업자 수는 지난 2019년 4위(59명), 2020년 3위(36명), 2021년(53명)과 2022년(53명) 2위에 이어 2023년 61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 동아대는 지난 2013년부터 K-Move 사업에 11년 연속 선정돼 운영해오고 있으며 4개 과정 모두 5년 연속 최우수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동아대는 K-Move 사업 외에도 해외취업 희망자를 집중 관리하고 해외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 미국·일본·말레이시아·동티모르 등 다양한 국가로 해외취업을 장려하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오응수 동아대 글로벌인재개발센터 소장은 "국내를 넘어 해외취업 강화에도 앞장서 수요자 맞춤형 해외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계속해서 1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동아대 승학캠퍼스 전경

구성원 및 시민 위한 명사초청 특강·인문학 콘서트 성황리 개최

동아대가 구성원들과 시민을 위한 다양한 특강 행사를 개최, 문화향유 기회를 선사했다.

'2023년 명사초청 특강' 행사를 총학생회·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주관으로 성황리에 개최했다. 11월 21일과 22일 이틀간 승학캠퍼스 리인홀 및 뉴턴공원과 부민캠퍼스 김관음행홀에서 열린 행사엔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 유튜버 궤도(김재혁), 이대호 전 롯데사이언스 야구선수, 유튜버 '파추형' 홍성우 원장 등 유명 인사들이 출연해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 첫날(21일)엔 우리나라 대표 경찰학자·범죄분석가인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이 '현대사회와 범죄 심리'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앞서 유튜버 '안될 과학' 진행자로 방송 및 온라인 플랫폼에서 활동하고 있는 과학 전문 크리에이터이자 과학 커뮤니케이터 유튜버 궤도(김재혁)는 '과학 소통이 무슨 쓸모가 있을까?'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둘째 날인 22일엔 '조선의 4번 타자' 이대호 전 야구선수가 '도전은 끝까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청중을 만났다. 이어 '파추형'으로 유명한 유튜버 홍성우 원장이 '비노의학과 성에 대해 몰랐던 사실들-대학생에게 전하는 비노의학'으로 강연했다.

이번 행사에선 특강뿐만 아니라 동아리(스트리트·가리온·노래의 메아리·더 조커) 공연도 흥미를 돋웠고 뷰티와 건강, 라이프, 취업 등 부스를 운영하며 현열 장려·마약 근절·플로깅 등 캠페인도 진행했다. 인문학대학은 '2023 열린 인문학 콘서트'를 11월 27일 부민캠퍼스 국제관 다우홀에서 개최했다. '열린 인문학 콘서트'는 인문학 활성화와 부산 시민의 인문학 소양을 위해 강연 및 예술 공연 등 콘텐츠를 제공하는 행사로 지난 2014년부터 열리고 있다.

동문 황범 KNN 아나운서 사회로 열린 이날 콘서트에선 김경일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와 권명아 동아대 한국어문학과 교수의 고품격 강연이 진행됐으며 동아대 구성원과 부산 시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김 교수는 '생각으로 나를 지키기', 권 교수는 '당신이 생각하는 미래가 여기에, 인간너머의 비인간학 젠더어펙트 연구'란 주제로 각각 강연에 나섰다.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김 교수는 중앙심리부검 센터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게임문화재단 이사장 등을 맡고 있다. tvN '어쩌다 어른', '책읽어드립니다', '알쓸법잡', KBS '속보'는 TV '사이드' 등 방송활동도 활발히 하는 스타강사다. 저서로는 『마음의 지혜』, 『김경일의 지혜로운 인간생활』, 『타인의 마음』, 『적정한 삶』, 『창의성이 없는 게 아니라 꺼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등이 있다. 권 교수는 동아대 '젠더어펙트연구소'를 만들어 정동(情動, affect) 및 젠더 연구방법을 결합해 주제와 몸, 삶과 죽음, 질병, 장애, 소수자, 포스트휴먼 등에 대한 인문학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하며 '연결'과 '의존'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의제를 발굴, 연구하고 있다.

▼ 위부터 '2023년 명사초청 특강' 이대호 전 야구선수,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 '2023 열린 인문학 콘서트' 김경일 교수



동아대 교수들 정부와 학회 수상 활약

동아대 교수들이 정부와 각종 학회에서 수상하며 학교 명예를 높였다. 이정재 건축공학과 교수가 새로운 방법론 정립 및 기술 개발에 기여한 공으로 '제14회 공기의 날'을 맞아 환경부 장관상을 받았다. 기계공학과 이현섭 교수는 '2023 기계의 날 기념식'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한국트라이볼로지학회 특별상인 '석헌학술상'을 받았다.

신소재공학과 이효종 교수는 연구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23년 연구산업 유공 장관표창 수상 행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을 받았다.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김병권 교수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을 활발히 수행, 부산광역시 심뇌혈관질환 예방에 기여한 공적으로 '2023년 심뇌혈관질환관리 유공자'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정만희 명예교수와 신소재공학과 최창욱 명예교수는 10월 23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제66회 부산광역시 문화상을 받았다. 정 명예교수는 40여년간 저서 20여 권과 논문 86편을 발표해 국내 헌법학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으로, 최 명예교수는 공학 인재 양성과 기술개발, 산학협력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등 주요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으로 선정됐다. 박상원 정보수학과 교수는 영남지역 수학 발전에 공헌하고 특히 수학의 이해와 저변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공을 인정받아 '2023년 영남수학회 정기총회 및 연구발표회'에서 공로상을 받았다. 대한가정의학회장을 맡은 한성호 의과대학 교수는 부산 MICE 앰배서더로 위촉됐다.



▲ 제66회 부산광역시 문화상 시상식(부산시의회 대회의실)



▲ 왼쪽부터 이정재, 이현섭, 이효종, 김병권 교수



▲ (위) 왼쪽부터 윤진호, 조종현 교수
(아래) 김용의 교수(오른쪽에서 두 번째)

동아대 교수들 활발한 연구활동 펼쳐

동아대 교수들이 활발한 연구활동으로 주목받는 연구결과를 냈다. 윤진호(의학과)·조종현(의약생명공학과) 교수 공동연구팀은 미토파지를 촉진해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물질 개발에 성공, 학술지 '테라노스틱스(Theranostics, Impact Factor 12.4)'에 게재했다. 의약생명공학과 조완섭 교수는 '나노 물질 안전성 평가와 표준시험법 개발'로 부산산업과학혁신원(BISTEP)이 부산시와 함께하는 '2023년 부산지역연구개발 우수성과'에 선정됐다. 강도영(의학과 핵의학교실) 의과대학 학장이 '2023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지역혁신 자율과제에 선정돼 2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고 '지역특화 방사선의료바이오 기술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 과제를 수행한다. 이종호 대학원 건강과학과(자연과학대학 바이오메디컬학과 겸무) 교수는 '어드밴스드 사이언스(Advanced Science)' 온라인판에 논문을 게재했다. 이 논문은 한국 과학자들의 우수한 논문을 알리는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 한국을 빛낸 사람들(한빛사) 추천논문으로도 선정됐다. 4단계 BK21 미래환경 생체방어 융합사업단은 'Journal of Hazardous Materials' 온라인판에 논문을 게재했다. 법학전문대학원 김용의 특임교수는 튀르키예 국립 에르시예스 대학(Erciyes University) 초청을 받아 '4차 산업혁명시대 국제무역과 중재에 대한 법제도와 정책'을 주제로 강연했으며, 동아대 법학연구소와 에르시예스 대학 로스쿨 상호 교류 협정도 맺었다.

학술교류 세미나·캡스톤 디자인 대회 등 국제 행사 열려

동아대가 해외 대학과 학술 교류 세미나 및 경진대회 등을 활발히 개최, 구성원들의 견문 확장에 도움을 주고 있다.

공학교육혁신센터와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단(LINC3.0) 주최로 열린 '2023 국제 캡스톤디자인 캠프&콘테스트(International Capstone Design Camp&Contest 2023)'에 동아대를 비롯 일본 구마모토대(Kumamoto University), 대만 가오슝대(National Kaohsiung First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학생 등 100여 명이 참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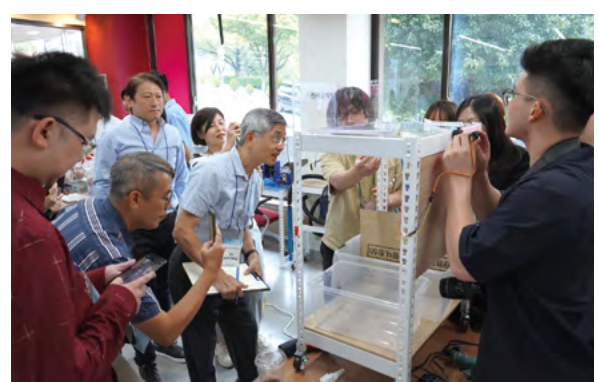
LINC 3.0 사업단은 베트남 하노이국립대 공대와 'Si기반 자율주행 경진대회 및 연구교류 세미나'를 열고 자율주행 자동차 SW 기술을 배우고 경진대회를 통해 글로벌 협력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패션디자인학과가 승학캠퍼스 교수회관 3층 인스파이어홀(INSPIRE HALL)에서 중국 청도대학방직복장학과와 개최한 교수연수회에 이해우 총장과 이 교수를 비롯한 패션디자인학과 교수들, Ma Jianwei(马建伟) 청도대 섬유유류학부 원장(청도 공업연합회장) 등 청도대 관계자, Guo Ruijiang(郭瑞江) 청도 패션연합회 비서장, 청도 섬유패션기업 관계자, 학부생 및 대학원생이 참석했다.

중국 징더전도자대학교와는 학부생 교류뿐만 아니라 예술·체육 분야를 중점으로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유학생 유치에 대한 협의, 미술 분야 교류 협력을 본격 추진, 공동 국제교류전과 학생 및 교원 공동 워크숍 개최 등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젠더어펙트연구소는 일본 리쓰메이칸(立命館大学)대학 코리아연구센터와 국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MOU 협약식과 학술성과 공유회, 공동 학술대회 등을 진행했다. 워크숍 첫째 날, 두 기관은 그동안 진행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공동연구 프로젝트 진행에 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 MOU도 체결, 향후 지속적인 학술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둘째 날은 '네이션 너머의 정동지리'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열었다.

태권도학과는 '국제캠프'를 4개국 200여 명의 선수와 지도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승학캠퍼스 태권도실 등에서 개최했다. 이번 캠프는 한국 대표 스포츠인 태권도를 알리고 동아대 태권도학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 선수들의 전문성과 경기력 수준 향상, 태권도학과 재학생 해외진출 도모 등을 위해 마련됐다. 또 이상호 교수와 학생들은 부산시와 자매도시인 베트남 호치민시 간의 스포츠 교류 사업에 부산 태권도 선수 대표로 참가해 스포츠교류 업무협약, 친선체육대회 등을 개최했다.



▲ (위) 동아대에서 열린 '2023 국제 캡스톤디자인 캠프&콘테스트(International Capstone Design Camp&Contest 2023)' (아래) 동아대와 중국 청도대학방직복장학과 관계자들

이진 미 시카고 메인타운십 교육위원회와 국제교류 협력 논의



▲ (이해우(왼쪽에서 세 번째) 동아대 총장과 이진(왼쪽에서 네 번째) 미국 시카고 메인타운십 교육위원, 김창석 부산시의원(왼쪽에서 두 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아대는 이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메인타운십(Maine Township District 207) 교육위원과 국제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해우 총장과 박헌태 대외국제처장 등은 11월 20일 승학캠퍼스를 방문한 이진 위원과 만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력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엔 동아대 출신인 김창석 부산시의원(사상구)과 조관홍 (사)부산포럼 상임대표도 참석했다.

이 위원은 "지난해 동아대를 방문했을 당시 기억이 좋아 올해 다시 찾아오게 됐다"며 "부산시와 자매도시인 시카고 교류와 더불어 일리노이주 대학들과 동아대의 교육 유대관계가 맺어질 기회가 많이 생기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한국 학생들의 관심 많은 시카고 지역 대학들과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등 상호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부산시와 적극 협력해 여러 교류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아대 학부생 및 대학원생 각종 대회 수상 활약

동아대 대학원생과 학부생들이 각종 대회에서 수상하는 활약을 펼쳤다. 조선해양공학과 'OpenDEP 팀'은 '제4회 자율운항보트경진대회(KABOAT 2023)'에서 종합점수 1위로 첨단융합기술상(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생명자원산업학과 김나현(3) 학생은 '2023년 생물다양성 청소년리더 및 녹색기자단' 활동에서 총 4건의 콘텐츠가 선정돼 환경부 장관상을 받았다. 건축학과 학생들은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2023년 JIA 한일워크숍'에서 1등상인 최우수상을 받았다. 미디어 리터러시 대회에서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부산행'팀(이준희(4)·이승우(4)) '지하철 적자는 노년층의 무임승차 때문이다?'란 주제로 영예의 대상을, '진격의 팩트' 연합팀(제서현(4)·송유진(4))은 '부산 시민, 동백팩스 월 4만 5천원 최대 환급받고 있을까'를 검증,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경영정보학과 주은진(외 8명) 학생은 연구학점제를 활용해 '2023 한국경영정보학회 대학(원)생 생성형 AI 공모전'에서 '블루아워(The Blue Hour)'라는 작품으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예술체육대학 공예학과(산업디자인학과 복수전공) 하가은(3) 학생은 '제4회 관광통계 인포그래픽 공모전'에서 코로나 이후 국내여행 변화 주제의 '이제, 다시 여행'을 출품, 최고의 영예를 안았다. 전기공학과 학부생(박제윤·박지환·정민아(3)) 팀은 '2023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에서 특허전략수립 부문에 참가, '삼성SDI 후원 우수상'을 수상했다. 산업디자인학과 안재영(4) 학생은 '2023 경남 K-디자인 어워드'에서 '어시스트 보행기&휠체어'를 제안 대상을 차지했다. 행정학과 학생들이 '제21회 전국 대학생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에서 '한국의 안전 및 재난대응체계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영상을 제출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2023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에서 국제무역학과 이광현(4) 학생은 최우수상을, 김나영·강지영(4) 학생은 장려상을 받았다. 생명자원산업학과 3학년 문건영·김규현 정예리 학생 팀이 전국 규모 '제5회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 콘텐츠 공모전'에서 'The most beautiful flower'라는 제목의 영상작품을 제작,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장상(장려상)과 상금 100만 원을 받았다.

▼ '제4회 자율운항보트경진대회(KABOAT 2023)'에서 종합 1위 성적을 거둔 조선해양공학과 학생들



▲ (위)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한 김나현 학생
(아래) 2023 한국경영정보학회 대학(원)생 생성형 AI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경영정보학과 학생들

한국연구재단 '2023년 박사과정 연구장려금 지원사업'에 정유라(화학공학과 분자생물공학실험실) 박사과정생은 '미생물 유래 라카아제의 카다놀 중합을 통한 옷질 대체 시스템 개발' 과제로, 임지우(의학과 생리학교실) 박사과정생은 '3차원 모낭 공동 배양 모델을 이용한 모낭에서 AQP3 역할 규명' 과제로 선정됐다. 에너지·자원공학과 이은주 석사과정생과 환경·에너지공학부 미래에너지공학전공 김강희 학생은 한국지식재산교육연구학회 '지식재산 인 재장학금' 장학생에 선정됐다. 일반대학원 의상섬유학과 정임주·김지연 박사과정생이 '2023년 한국의류산업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 발표상을 각각 받았다. 의과대학 노지현 예방의학교실 연구원과 손하은 박사과정생이 대한예방의학회 최우수 포스터상 및 학술상 동상을 받았다.



산악회 남극 등정 성공 7대륙 최고봉 등정 피날레 완성

동아대 산악회가 남극 최고봉 'Vinson(빈슨)' 등반에 성공, 7대륙 최고봉 등정을 완성했다. 동아대 산악회는 '빈슨매시프 OB'·'아콩카과 OB'·'아콩카과 YB' 등 3팀의 원정대를 꾸려 남극 최고봉 마운트 Vinson(4,892m) 등정과 남미 최고봉 아콩카과(6,964m) 재등정에 나섰다. '빈슨매시프 OB'팀 조벽래(산업공학과 88학번) 동문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해 12월 12일 남극 등정에 성공했다. 조벽래 동문은 이후 '아콩카과 OB'팀에도 합류, 임동한(자원공학과 93학번) 동문과 함께 지난 2일(현지시각) 아콩카과 정상에 올랐다. 이어 재학생으로 구성된 '아콩카과 YB'팀 조현세(기계공학과 18학번)·이호선(기계공학과 19학번) 학생은 지난 11일 아콩카과 등반에 성공했다. 지난 1961년 설립, 60년이 넘는 전통을 이어온 동아대 산악회는 끈끈한 단합력과 조직력으로 산악계에서 호평 받아왔다. 동아대 산악회는 2008년 8월 유럽 최고봉 엘브루즈(5,642m), 2010년 5월 아시아 최고봉 에베레스트(8,848m), 2012년 아프리카 최고봉 킬리만자로(5,895m), 2013년 1월 남미 최고봉 아콩카과(6,964m), 2015년 오세아니아 칼스텐츠(4,884m), 2016년 북미 최고봉 데날리(6,194m) 등정에 이번 남극 빈슨(4,892m)까지 성공하며 7대륙 최고봉 등정을 완성하는 업적을 이뤘다.



▲ 남극 최고봉 'Vinson(빈슨)' 정상에 오른 동아대 산악회 OB 조벽래 동문



▲ 김영도 다큐멘터리 'BASEBALL HARMONY' 포스터

동아대 출신 한국 최초 흑인혼혈 야구선수 김영도 다큐멘터리 '베이스볼 하모니' 화제

동아대 72학번 동문이자 야구부 4번 타자였던 김영도 씨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베이스볼 하모니' 특별상영회가 교내에서 열렸다. 상영회엔 다큐를 제작한 홍치영 감독, 김 씨의 동기인 김창복 전 동아대 야구부 감독 등이 참석했다. '베이스볼 하모니(BASEBALL HARMONY, 감독 Joo-il Gwak·Amy Hutchinson)'는 한국 최초의 흑인혼혈 야구선수이자 체육교사, 야구감독이었던 김영도 씨의 인생 역경을 다룬 다큐멘터리다. 이 다큐멘터리는 '미국 기독교 영화제'에서 베스트 다큐, 베스트 감독, 베스트 작가, 베스트 음악·편집 상을 휩쓸었다. 140년 전통의 '레인칼리지'에서 주최한 'Award ceremony at Lane doc festival'에서도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세계 최고 독립영화제인 '선댄스영화제' 출품작이기도 하다. 다큐멘터리 '베이스볼 하모니'는 그가 스스로 고아원에 걸어들어 간 사연, 어머니 산소방문, 야구선수 시절 친구들, 교사로 재직했던 대신중학교, 35년 만에 다시 잡아 본 야구 감독용 노크배트, 이제는 인종차별 발언을 너털웃음으로 웃어넘길 수 있게 된 김영도 씨의 모습을 담았다.

토론식 수업으로 창의적 사고를 도출하다

66 노벨상을 받는 것도 사람일 뿐.
자신의 광야에서 꿈을 이루기 위해
쉽 없이 앞으로 나아가길. 99

Cho Dong Je



겸손·포용·배려로 맺은 차 한 잔의 결실

대학원 국제법무학과 조동제 교수

※

동아대학교 대학원을 다닌 중국인 동문들이 은 사이신 조동제 교수님과 나는 이야기를 기록한 책 『올라와서 차 한 잔 하시게』를 중국 현지에서 발간했다고 들었습니다. 발간 계기가 궁금합니다.

유학생들의 힘들음을 알기에 중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과 차를 매개로 소통하며 학문의 길을 묻고 배움을 나눴습니다. 처음 두 명의 학생이 교감했던 소감을 묘사했고 그 내용을 다른 학생들과 공유하는 가운데 더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지속해서 전해질 수 있도록 책으로 발간하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겸손, 포용, 배려'라는 여섯 글자에 담긴 스승의 가르침과 관심을 이해한 듯합니다. 학생들이 직접 책 제목을 정하고 만남(不負相遇), 선생의 질문(先生之問), 사람을 위한 학문(为人治学) 세 부분으로 구성했습니다. 말미에 적힌 '인공 지능은 영원히 인간의 지혜에 도달할 수 없다'는 구절은 사람의 사고력은 그 어떤 도구도 제지할 수 없음을 뜻합니다.

대학은 각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강의할 때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나 원칙이 있을까요?

대학은 폭넓은 사고력을 가진 지식인을 통해 각 분야의 인재 양성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저는 수업시간에 간단한 논제를 주고 학생들이 스스로 없이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도록 합니다. 다양한 논제를 함께 토론하는 과정에서 사고방식의 변동성, 종합성과 응용성을 추구할 수 있고, 학생들의 기초지식도 다양해지며 나아가 현실 생활과 시대적 쟁점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동아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국립타이완대학교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으신 것으로 압니다. 교수님 삶에 영향을 준 스승은 어떤 분이신가요?

가장 존경하는 스승은 국립대만대학 법과대학원 지도 교수이신 王泰鎔·王仁宏(왕태전, 왕인굉) 교수입니다. 두 분 교수님께서 입학 때부터 졸업 때까지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고 저는 늘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아직도 그 답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왕인굉 교수님은 제가 중국어 공부에 매진하도록 격려해주셨고 덕분에 대만 각계각층에서 활동하며 장학금 등 유학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중문으로 중국 관련 법률 서적을 출판했고 중국 문화를 보다 깊게 이해하며 폭넓은 인연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올라와서 차 한 잔 하시게』를 출간한 중국인 제자들도 기억에 남겠지만, 이외에 기억에 남는 제자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학생들과 토론식 수업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비판적이며 창의적인 사고를 도출하려 합니다. 사고력은 한 사람의 진로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것이니까요. 2008년 국제법무학과 신입생 중 1명이 저의 수업 스타일에 대해 소크라테스의 '산파술'처럼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생각함으로써 본질을 깨달을 수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정해진 틀에서 공부해 온 학생들에게 신입생 강좌는 개인의 생각, 창의력, 상상력, 독창력이 다양하고 색다른 면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고도 했습니다.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있어 그 폭을 넓혀주는데 도움을 줬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석당인재학부장 재임 시 신입생 환영식에서 학생들에게 '노벨상을 받는 것도 사람일 뿐이다'고 하셨고, 창의적 대학 설계 과목 수업에서는 1+1=?라는 질문으로 학생들의 사고를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기도 하셨습니다. 동아대 재학생이나 동문들에게 전하고 싶은 의견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독서는 사고를 확장해주며 유연한 사고를 발휘해 새로운 생활에 적응력을 키워줍니다. 한국은 급속한 기술 발전을 이룬 국가로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인재가 필요하며 각 세대에는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모든 개인에게 인생은 계도가 아니라 광야입니다.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꿈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집니다. 노벨상을 받는 것도 결국 사람의 일임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이외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많이 웃으세요, 그리고 예뻐지세요!
중국 서북정법대학교 경제대학원 특강에서 중국 학생이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석박사 학위를 받은 학생의 질문이라 깜짝 놀랐지만, 평소 3초 이내에 답을 해준다는 지론을 갖고 있어 얼른 답했습니다. 대답을 듣고 학생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깨닫길 바라는 마음에서 전한 우회적인 답변이었는데, 만족해하는 학생을 보니 흐뭇했습니다.

‘일구이무一球二無’

66 공 하나에 다음은 없다. 99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된 모교

JTBC 최강야구 최강몬스터즈 김성근 야구감독

예능 프로그램인 '최강야구'에 출연을 결심한 계기가 있으신지요.

TV 예능 프로그램이지만 선수들의 마음가짐이 진지해 보였다. 은퇴한 선수들이라 몸은 예전과 다른데 야구에 대한 애정과 이기고 싶다는 진심으로 열심히 뛰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 무엇보다 야구에 집중하는 모습이 좋았다. 그리고 야구에 진심인 PD도 있다. 그 PD가 부산 사람이다. 인연이라면 인연이라고 할까. 하지만 처음 팀을 맡았을 때 선수들이 훈련이 제대로 안돼 있어서 훈련 시간표부터 만들었다. 예능이지만 출연료 받으면 프로라고 생각했다. 나도 마찬가지다. 프로일 때보다 더 열심히 오래 준비한다.

'야구에 진심인 사람, 묵묵하게 노력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멋진 리더' 등 호평이 잇따르는데, 이런 반응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지도자는 그냥 될 때까지 시행착오를 같이 해주는 사람이다. 여기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하면서 될 때까지 같이 반복해서 연습하고 스스로 느끼고 깨우치도록 하면 된다. 이번 항저우아시아안게임에서 우리나라 야구 대표 팀은 멋진 동료애를 보여줬다. 특히, 젊은 선수들이 내가 잘 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의식을 갖고 움직였다. 이런 공동체 의식은 우리 사회에 더 필요한 것이고 지도자나 교육자의 역할은 그래서 더 중요하다.

지난해 일본에서 은퇴를 선언하기도 했었는데 최강야구를 하지 않았다면 뭘 하며 지내고 계셨을까요.

나는 지금도 야구장 가는 길이 제일 즐겁다. 야구밖에 모르고 야구 감독을 하다 은퇴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제자들 만나 야구 이야기하거나 초중고 선수들 지도하거나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았을까.

감독님께서 1960년에 동아대에 입학했고 2011년에 명예학사를 받으셨는데 동아대 하면 어떤 기억이 떠오르시나요.

그때는 한국말이 서툴렀다. 부산에 처음 왔을 때 여기가 우리나라구나 하는 그런 인상만 남아 있다. 당시는 모든 게 생소해서 집과 학교를 오가며 연습만 했다. 그때 같이 했던 학생들이 패기가 있었다. 일본 야구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감각도 있었고 즐겁게 하면서도 패기가 있고 활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 학교에 계셨던 분들도 야구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당시는 동아대와 성균관대, 두 학교 야구팀이 제일 쟁쟁했고 동아대는 성적도 괜찮았다. 그게 지금까지 살아있으니까 동아대가 우리나라 학생 야구에 좋은 선례를 남겼다 생각한다.

일본에서 태어나셨지만 한국 국적을 유지하셨던 걸로 압니다. 부산으로 와서 동아대에 입학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알게 되셨을 텐데, 동아대는 어떤 의미로 남아 있으셨는지요.

일본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 잘 몰랐다. 동아대는 내 한국 생활의 출발점이라 의미가 크다. 1년 남짓 다녔지만, 그 1년이 없었다면 나는 한국에 오지 않고 일본에 그대로 있었을 것이다. 그 당시만 해도 재일교포들이 북한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고 우리 가족도 가기로 예정돼 있었다. 그런데 내가 우리나라에 재일교포 야구단으로 오면서 가지 않게 됐다. 살아보면 계기라는 게 참 중요한데 내게는 동아대가 그렇다. 동아대는 새 출발의 기회가 됐고 야구 선수로 코치로 감독으로 한국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어 준 곳이다. 내 말에 부산 특유의 말투,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많이 남아 있다. 일본 가서도 또 한국에서도 이야기할 때 부산 특유의 말투가 나올 때가 있다.

김성근 감독 프로필

경력

- 마산상업고등학교야구부 감독
- LG 트윈스 감독
- 기업은행 야구단 감독
- SK 와이번스 감독
- 충암고등학교야구부 감독
- 고양 원더스 감독
- 신일고등학교야구부 감독
- 한화 이글스 감독
- OB 베이스 감독
- 후쿠오카 소프트뱅크 호크스 감독 고문
- 태평양 돌핀스 감독
- JTBC 최강야구최강 몬스터즈 감독
- 삼성 라이온즈 감독
- 쌍방울 레이더스 감독

수상

- 올해의 감독상(1986, 2007, 2008, 2010)
- 한국시리즈 우승, 정규시즌 1위(2007, 2008, 2010) 외

출간

- 『꿀찌를 일등으로』 『리더는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인생은 순간이다』 외

동아대 태권도 시범단의 힘찬 발걸음, 프랑스 파리 하늘을 가르다

66 태권도로 부산과 대한민국을
알린 것은 인생의 값진 경험 99

DONG-A Demonstration team



태권도로 동아대와 부산, 한국 알리고 싶어요

태권도시범단

동아대학교 태권도학과 지원 계기, 그리고 태권도 시범단에 들어간 이유가 궁금합니다.

어릴 적부터 태권도를 접했어요. 처음에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하는 게 좋았지만,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내가 열심히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됐고 그게 바로 태권도였어요. 대학에 오기 전에도 시범단 활동을 했기 때문에 진학 정보를 찾아보다가 동아대 태권도학과에 들어왔고 시범단에도 들어가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태권도 시범이 참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아대 태권도 시범단은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라서 기대와 설렘이 컸어요. 그만큼 많이 배울 수 있어 만족스럽습니다.

태권도 시범단으로서 평소 어떻게 생활하고 연습하나요?

감독님께서 말씀하시길, 태권도 시범단은 말 그대로 사람들에게 '시범'을 보이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원들은 학과 수업이나 교양 수업 등 운동 외 부분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또 태권도라는 종목이 예의를 기본으로 하기에 예의범절 면에서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시범단 운동 시간은 자유롭고 활동적인 분위기에서 선배 혹은 코치님께 묻고 배우면서 진행됩니다. 태권도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종목이 있는데 품새, 겨루기, 시범입니다. 각 분야에서 쓰는 근육들이 조금씩 달라서 종목마다 하는 훈련이 달라요. 기본기를 충실히 하면서 조금씩 높은 난이도를 실현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시범 분야 훈련입니다.

국제박람회기구(BIE)가 있는 파리에서 활약하고 왔어요. 어떻게 가게 된 건가요?

유라시아시민원정대의 마지막 목적지가 파리였는데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과정이 쉽진 않았고 사비로 가야 할 뻔했던 상황도 있었지만, 태권도학과 교수님들, 이해우 총장님, 그리고

신정택 총동문회장님까지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고 힘써주셔서 프랑스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태권도 기술 시범과 케이팝 태권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현지인들에게 태권도 체험도 제공했어요. 반응이 어땠나요?

개막식 날에 하필 비가 와서 태권도 시범을 보여주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함께 준비한 것들을 보여주자'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단원들이 다치지 않고 무사히 시범을 보여줘 잘 해낸 것 같고 기쁩니다. 현장 분위기도 정말 좋았습니다. 현지인분들이 케이팝 노래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시범할 때는 음악이 나오면 같이 불러주고 박수도 많이 치고 환호도 많이 해주셨어요. 9월에 다녀왔지만 아직도 생각나는 시범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시범을 하기에 앞서 격파체형을 진행했는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현지인분들이 재밌게 즐기면서 참여해 줘서 더욱 기억에 남는 활동이었습니다.

태권도 버스킹을 하면서 파리의 상징이랄 수 있는 에펠탑을 배경으로 도복을 입고 촬영한 사진이 인상적입니다.

파리라는 도시의 거리에서, 그것도 에펠탑이라는 상징적인 장소를 배경으로 태권도 버스킹을 할 수 있어서 일단 너무 좋았습니다. 버스킹을 할 때 정말 많은 관객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파리에 간 것은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을 값진 경험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에펠탑 사진은 버스킹 이후에 찍은 사진이고 그 밖에도 관객분들과 찍은 사진, 유라시아 대장정 단원들과 찍은 사진 등 그날의 순간들을 사진에 많이 담았습니다. 이번에 프랑스 파리까지 가서 부산을 알리고 대한민국을 알리는 활동을 하기 위해 쉬는 날 없이 전 단원이 열심히 준비했어요. 많은 물품도 준비하고 음악과 안무 등 거의 모든 걸 직접 만들고 편집하면서 매일 연습도 했기 때문에 준비 과정은 힘들었지만, 저희가 준비한 것들을 다 보여주고 올 수 있어서 만족스럽고 좋았습니다. 한 번 더 파리에서 공연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국기 태권도를 널리 알리는 태권도 시범단 활동에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 동아대학교 태권도 시범단 단원으로서 목표가 있다면요?

처음에는 그냥 태권도 시범이라는 운동을 하고 싶어서 시작했지만, 시범단 활동을 해나가면서 대표 시범단에 들어가는 것이 새로운 목표가 됐습니다. 대표 시범단은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등에서 시범이라는 분야와 태권도를 알리는 데에 힘쓰는 곳입니다. 그런 대표단체에 들어가는 것이 이후의 목표입니다. 지금은 동아대 태권도 시범단 단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시범, 즉 본보기가 되는 생활과 앞으로의 시범 활동을 해내고 싶습니다.

대표 답변 : 이우성 학생



66 열정과 냉정을 겸비한 법조인이 될 것 99

대학에서 공공정책학을 전공하며 흥미를 느껴 법률전문가를 목표로 삼은 정희재, 경찰대학 졸업 후 경찰로 근무하던 중 법적 전문성을 갖춰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었다는 김경진과 이승택, 검사가 되고 싶었다는 천영환, 이들 4인은 동아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13기로 2024년 검사 임용시험에 합격했다.



Chun Young Hwan

Lee Seung Taek

Jung Hee Jae

Kim Kyung Jin

동아대 로스쿨에서 검사의 목표를 이룬다

로스쿨 13기 정희재, 김경진, 천영환, 이승택

*

로스쿨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어떤 것이며,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힘든 순간들은 어떻게 극복했는지 궁금합니다.

정희재 로스쿨은 변호사시험 합격을 목표로 달리는 마라톤입니다. 법률전문가가 꿈인데 바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루틴을 만들어 실천하고 학우들이 서로 독려하며 페이스메이커가 돼줬기에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김경진 경찰 근무를 병행했기 때문에 시간적인 압박이 가장 컸습니다. 휴가, 외출 등을 활용하면서 수업을 들었지만, 야근 다음 날 오전 수업을 들을 때면 집중도 어렵고 두통도 있었어요. 그럴 때 로스쿨 동기들, 교수님,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의 진심 어린 응원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천영환 시험에서 실수하며 제 학습 능력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원장님과 교수님, 선배, 동기들의 도움으로 힘든 순간을 잘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승택 직장생활과 학업을 병행하다 보니 체력적으로 힘든 점이 있었지만,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운동으로 체력 관리하며 극복했습니다.

쉽지 않은 임용시험을 통과한 소감도 부탁드립니다.

정희재 검사 임용이 아직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항상 겸손하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겠습니다.

김경진 제가 무언가 특출났다기보다, 주변 소중한 분들의 응원과 도움으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하며 감사할 따름입니다.

천영환 제13회 변호사시험 끝까지 충실히 잘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승택 최선을 다해 지도해 주신 교수님과 동기들 덕분인 것 같습니다. 매우 감사한 마음입니다.

롤모델로 생각하는 법조인이 있으신지요.

정희재·천영환 청백리로 유명한 조무제 전 대법관님입니다. 퇴임 시 '법관은 주변으로부터 초연하려면 고독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법관은 고독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한 학기 교수님으로 저희를 가르쳐주셨는데, 실력과 인품을 갖춘 조무제 전 대법관님의 삶은 공직자이자 법조인으로 따라가고 싶은 삶의 방향으로 본받고 싶습니다.

김경진·이승택 특정한 롤모델은 없지만 '열정과 냉정'을 겸비한 법조인이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떤 검사가 되고 싶은지, 하고 싶은 일도 얘기해주면 좋겠습니다.

정희재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는 더 엄격한 바른 검사가 될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헌신하고 국민들 앞에서 한 선서가 부끄럽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어떤 검사로 살아가야 할지 치열하게 고민하겠습니다.

김경진 조직 내부에서는 함께 일하고 싶은 검사, 외부적으로는 온기(溫氣)와 냉기(冷氣)가 있는 검사가 되고 싶습니다.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겁게 약자와 피해자들을 따뜻하게 감싸주면서도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천영환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해 업무를 철저히 준비해서 수행하고 편견·선입견·사감 없이 일하며, 공익의 대표자로서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과 연민을 잃지 않는 검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승택 사회 정의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검사가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 동아대 로스쿨에 지원하려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신지요?

정희재 동아대 로스쿨은 발전 가능성이 무한

한 곳이라 생각합니다. 훌륭한 교수님들과 함께 발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김경진 후배님들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을 때 수준이 상당하다고 느꼈고 앞으로도 다수의 검사 합격자가 나올 거라 기대됩니다. 동아대 로스쿨에서 목표하는 바를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천영환 로스쿨 입학이 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들어오실 후배들은 저보다 큰 가능성과 잠재력을 갖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가능성에 한계를 두지 말고 성실히 배우고 노력해 한국 사회가 필요로 하는 법조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승택 이번 기수에서 검사 외에 재판연구원(로클럭)도 1명 나온 만큼, 점점 인프라와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 이후에도 13기만큼의 인원이 검사로 선발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모교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희재 학부(석당인재학부)와 로스쿨 모두 동아대에서 공부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동아대는 어머니처럼 편안하고 제 편이 되어주는 모교입니다.

김경진 부모님 두 분 다 동아대를 나오셨니다. 인터뷰를 할 만큼 제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동아대 후배님들에게 조금의 도움이라도 됐길 바랍니다.

천영환 총장님의 지원과 격려, 법원원장님의 올바른 인도, 민사법·형사법·공법 교수님들의 훌륭한 강의로 검찰 준비에 힘쓸 수 있었습니다. 행정실 선생님의 지원과 선배님들의 조언도 큰 힘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맡은 일을 수행하겠습니다.

이승택 동아대는 제가 검사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학교입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도담한 우리 문화유산

문화유산에는 인류가 지나온 삶의 발자취가 스며있다. 선조들이 남긴 사상과 철학, 예술적 감각, 다양한 삶의 방식까지 유추해 볼 수 있다. 국가등록문화재 제41호로 등록된 유서 깊은 건축물이며 부산 최초의 박물관인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은 국보 2점, 보물 12점 등 3만여 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석당박물관 소장 다섯 점의 문화재를 소개한다. 물려받은 유형의 자산에서 무형의 가치를 찾아내고 다음 세대를 위해 새로운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것, 바로 우리의 역할이다.



17세기 불상중 뛰어난 작품성과 자료적 가치가 있는 목조보살좌상

시대: 조선 | 크기: 전체높이 50cm, 어깨너비 23cm, 무릎너비 33.5cm |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20호

17세기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목조보살좌상은 전체적으로 화려함이 배제됐으나 부드러운 선과 섬세함이 돋보이는 우수한 작품이다. 보관 정면에 부착됐던 수정 장식물과 통견 착의법 등은 조선 후기 불상에서는 보기 드문 표현 기법이다. 통통한 얼굴과 후덕해 보이는 인상, 섬세한 보발의 표현과 귀 및 귀걸이 등 표현에서 사실성이 드러난다. 큼직하고 대담하면서 볼륨감 있는 옷주름 표현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조선 후기 17세기 제작된 불상 중에서도 작품성이 뛰어난 뿐 아니라 다양한 17세기 목조불상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작품이다.



불교 서적 간행 사항 파악하는 귀중한 자료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

시대: 조선 | 크기: 가로 37.7cm, 24.9cm (반곽 가로 25.4cm, 세로 19.6cm) |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20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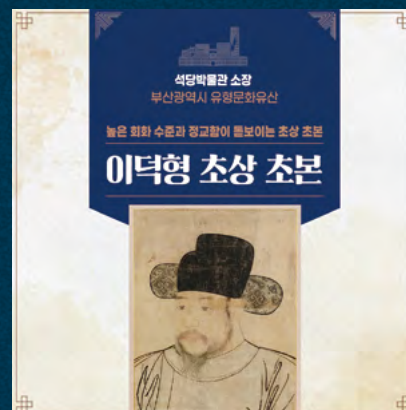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란 물과 땅에서 해매는 모든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불교 의식인 수륙재에 대한 의례서다. 소장품은 1558년 공주 계룡산 감사에서 판각한 정판이며 나중에 인쇄된 목판본이다. 내용은 서문 없이 본문이 시작되는데 2행의 편찬사항을 비롯해 총 43편으로 이뤄져있다. 1270년 중국 남송 승려 지반이 저술한 것이다. 수륙재 기원과 의식, 절차를 담았다. 책을 풀이하면 '법계성범'은 성인과 범인이 서로 다르더라도 본성이 평등하므로 진리가 하나임을 뜻한다. '수륙'은 물과 땅에서 고통받는 중생을 의미한다. '승회'는 불법을 배우는 성대한 모임, '수재'는 명복을 빌기 위해 부처에게 드리는 공양이다. 책 마지막에는 축원문과 시주인 명단, 간행인 명단, 간행 기록 순으로 적혀 있어 다른 소장처 의궤와 비교 연구가 가능했다. 1470년 왕실판본 다음으로 간행된 희귀본이다. 당시 불교 서적 간행 사항 파악하는 귀중한 자료다.



작은 화면에 청풍지각을 완전히 표현 정선 필 청풍계지각

시대: 조선 | 크기: 가로 43cm, 세로 29cm |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유산 제20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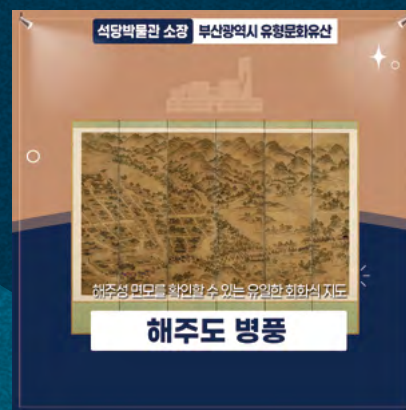
겸재 정선이 청풍계 풍경과 그 속에 자리 잡은 청풍지각을 표현한 진경산수화다. 청풍계는 '맑은 바람이 부는 계곡'이란 의미로 서울 인왕산 기슭골짜기인 현재 종로구 청운동 일대를 말한다. 인왕산과 청풍계, 바위, 수목, 건물, 연못이 서로 조화를 이룬다. 수려한 경관에 감싸인 늪 연사, 태고정, 청풍지각은 삼각구도로 위에서 비스듬히 내려다보듯 묘사했다. 건물 주변에 있는 연못과 건물 사이로 다양한 수종의 나무를 울창하게 표현해 자연 속 삶의 여유가 전달되는 듯하다. 다른 청풍계 그림과 달리 작은 화면에 청풍지각이 완전히 표현된게 특징이다. 정선 노년 시절 무르익은 화법에 청풍지각을 중심으로 그려진 유일한 작품으로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높은 회화 수준과 정교함이 돋보이는 초상 초본 이덕형 초상 초본

시대: 조선 | 크기: 가로 45.4cm, 세로 62.2cm |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유산 제198호

조선 중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에 그려진 공신 초상화다. 이덕형은 '오성과 한음' 민간설화로 오성 이항복과 함께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 예조참판, 대제학, 병조판서를 거쳐 영의정 등 주요 관직을 두루 역임한 재상이다. 몸과 고개를 왼쪽으로 살짝 돌린 자세를 취하고 있다. 얼굴은 갈색 선으로 윤곽을 잡고 살구색을 입힌 뒤 간략한 명암 처리가 맑은 느낌을 준다. 가는 붓으로 눈매와 수미의 각한을 눈시를 흥채까지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채 총기 어린 눈에서 강직한 인품을 짐작할 수 있다. 옷 색과 주름은 간략하고 대담하게 표현돼 얼굴 묘사와 대비된다. 여러 점 제작하기 위한 본보기용 이지만 현존하는 다른 이덕형 초상에 비해 예술적 가치가 돋보인다.



해주성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회화식 지도 해주도 병풍

시대: 조선 | 크기: 가로 41cm, 세로 140cm |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유산 제183호

해주도 병풍은 황해도 감영소재지 해주성 일대 경관을 그린 실경도다. 산수화, 풍속화, 행사기록화, 회화식 지도 등 여러 요소가 한 화면에 조합된 연쪽 병풍그림이다. 해주성 전체가 표현되지 않은 점, 성 내부 중요 시설이 묘사되지 않은 것으로 미뤄 전체는 대략 10~12폭 대작으로 짐작된다. 18세기 이후 산수화, 기록화 발달에 힘입어 유행한 진주, 통영, 동래 등지 회화식 지도와 맥락을 같이 한다. 특히 해주성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회화식 지도로는 유일한 자료다. 경관 묘사는 매우 세밀하고 정교해 도화서 화원 수준작임을 알 수 있다. 회화사적 가치뿐 아니라 역사지리적, 학술적, 사료적 가치가 높은 작품이다.

공과대학 발전기금 전달식 개최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장상목 공대 학장, 김일근 공대 총동문회장, 남선우 건설시스템공학과 총동문회장, 김권제 아이큐랩 대표-김영신 (주)KTE 부사장-김덕열 두남화학 대표 발전기금 전달식 모습.

이해우 총장과 장상목 공과대학장을 비롯한 동아대 교수들과 동문들의 발전기금 기부가 이어졌다. 이 총장과 장상목 학장 가족, 김일근 공대 총동문회장, 남선우 건설시스템공학과 총동문회장, 김영신 (주)KTE 부사장, 김덕열 두남화학 대표, 김권제 주식회사 아이큐랩 대표 등이 그 주인공들이다. 이 총장과 김일근 총동문회장, 남선우 총동문회장, 장상목 학장 가족 등이 4,000만 원, 김영신 부사장이 3,000만 원, 김덕열 대표가 2,000만 원, 김권제 대표가 1,000만 원의 공과대학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김영신 부사장은 모교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산학협력을 활발히 추진해 오고 있으며, 박종오 전자공학과 교수를 공과대학 명예의 전당에 추대했다. (사)부산청년정책연구원을 설립하는 등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김덕열 대표는 박동원 화학공학과 명예교수를, 파워반도체협동조합 이사장

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권제 대표는 신훈규 박사를 공과대학 명예의 전당에 추대했다. 장 학장은 “공과대학 명예의 전당을 만들며 걱정이 많았는데 총장님과 공대 총동문회장을 비롯한 동문들, 여러 교수님들이 많이 도움 주시고 적극 참여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어려운 기업 여건에도 모교에 발전기금을 쾌척해주셔서 감사하고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했다. 김일근 총동문회장은 “학장님 등 많은 분의 노력으로 발전기금 전달식이 이어지고 있어 감사하고 앞으로도 공과대학이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고 했다. 남선우 총동문회장은 “모교 동아대에 늘 자긍심을 갖고 있다”며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지도교수님을 명예의 전당에 추대할 수 있어 감격스럽다”고 말했다.

재단법인 진여원

공과대학 발전기금 1,000만 원 전달

재단법인 진여원(신노엔, 眞如苑)이 공과대학 발전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공과대학 명예의 전당’에서 열린 발전기금 전달식엔 장상목 공과대학장과 최영익 산학부학장, 재단법인 진여원 마츠나가 아츠시 국제원장, 정경국원(부원장), 영준국원(부산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재단법인 진여원은 1936년 개조 이토 신조(伊藤眞乘)가 만든 신노엔을 근간으로 활동하는 법인이다. 한국에는 서울정사, 부산정사, 창원포교원, 제주포교원이 있으며 장학금·불우이웃돕기 등 나눔 실천, 한·일 불교 간 종교 화합 교류에도 앞장서고 있다. 재단법인 진여원은 ‘신노엔(眞如苑) 개조 이토신조(伊藤眞乘)의 세계평화와 개개인의 인격함양에 대한 철학과 함께 공과대학 발전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남겼다. 마츠나가 아츠시 국제원장은 “동아대는 그동안 학생들 교육과 육성에 많은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진여원이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을 위한 자리에 동참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재단법인 진여원과 동아대 공과대학 관계자들이 발전기금 전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 학장은 “진여원 정경국원과 교수불자연합회 학술대회를 계기로 인연을 맺은 뒤 해마다 아낌없는 후원과 지원을 받아왔다”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분자소자연구실 청람회

공과대학 발전기금 1,000만 원 전달

전기공학과 분자소자연구실 청람회 회원들이 공과대학 5차 발전기금 전달식에서 1,000만 원을 기부했다. 이번 전달식엔 장상목 공과대학장과 청람회 신훈규 회장, 최원석 한국복지사이버대학 총장, 김권제 아이큐랩 대표, 이수호 교수 등이 참석했다. 전기공학과 권영수 명예교수 연구실 졸업생으로 구성된 ‘분자소자연구실 청람회’는 권 교수를 공과대학 명예의 전당에 추대하기 위해 뜻을 모아 기금을 마련, 공과대학 발전기금으로 기부했다. 장 학장은 “졸업생 모임에서 기금을 마련해 지도교수님을 명예의 전당에 추대한 것이라 매우 의미가 있다”며 “졸업생들이 사회에서 많은 활약을 펼치면서도 꾸준히 상호 교류와 협력으로 단합된 모습을 보여 큰 귀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은사인신 권영수 명예교수님과 항상 열정적으로 공과대학을 잘 운영하고 계신 학장님께 감사하고 앞으로도 기회가 될 때마다 모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과대학은 새로운 도약과 미래 교육 혁신을 위한 첫걸음으로 ‘공과대학



동아대 공과대학 5차 발전기금 전달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명예의 전당’을 오픈, 이상윤 전 총장, 故 김만수 동아타이어공업 회장, 김재진 (주)경동건설 회장, 故 김택진 제1대·3대 공과대학장, 故 박운용 교수(토목공학과 장학재단 초대 이사장 등 공과대학 발전에 헌신한 인사를 명예의 전당에 추대했다.

이철 경영대학원 MBA 총동문회장
경영대학 발전기금 릴레이 55호 기부

이철 MBA 총동문회장이 경영대학 발전과 교육혁신을 위한 다우리스트 기프트(DAUist Gift) 고액 릴레이 기부 제55호 주자로 1,000만 원을 기부했다. 이 회장은 동아대 부민캠퍼스 경영대학 학장실을 찾아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동아대 MBA 46기를 졸업한 이 회장은 (주)C&D그룹 회장으로 필리핀 등 해외에서 프랜차이즈 사업 등을 활발히 펼치고 있으며 2023 부산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그는 “능력이 닿는 한 앞으로도 모교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후배들이 선배들보다 더 큰 성공을 이뤄서 모교를 빛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학장은 “MBA 총동문회장으로 동문 화합에 많은 애를 써주신데 경영대학 발전에도 큰 관심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이철(왼쪽) MBA 총동문회장이 김완중 경영대학장과 발전기금 전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혜영 법무법인 금정 대표 변호사
경영대학 발전기금 릴레이 56호 기부

이혜영 법무법인 금정 대표 변호사가 경영대학 발전과 교육혁신을 위한 다우리스트 기프트(DAUist Gift) 고액 릴레이 기부 제56호 주자로 1,000만 원을 기부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2월 8일 부산 농심호텔 1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동아대 경영대학원 석사(MBA) 원우회 2023년 회장 이·취임식 및 송년회’에서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동아대 MBA 56기인 이 변호사는 올해 MBA 원우회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후배들을 향해 “우리 모교인 동아대는 건학 80년을 넘어 100년을 내다보고 있으며 25만 명의 동문이 있고 훌륭한 선배님이 많이 배출된 자랑스러운 학교다”며 “‘한반도의 동력은 동아력’이라는 신념으로 동아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매사 최선을 다하는 세상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혜영(오른쪽) 경영대학원 MBA 제56기 원우회장이 김완중 경영대학원장과 경영대학 발전기금 전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은남 명예교수
간호학부 발전기금 2,000만 원 기부

이은남 명예교수가 간호학부 발전기금 2,000만 원을 기부했다. 발전기금 전달식엔 이해우 총장과 이 명예교수, 박현태 대외국제처장, 강지연 간호학부장, 민혜숙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 명예교수는 “그동안 쉽지 않다 지난 8월 정년퇴직 후 어느 정도 마음의 정리를 끝내고 새로운 계획도 하고 있다”며 “동아대 재직하며 학교 지원으로 많은 활동을 했기 때문에 퇴임 후에도 명예교수로서 학교에 많은 관심을 갖고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사립대학은 기부금이 많이 모여야 대학 발전에 탄력을 받는 만큼 다른 분들도 저로 인해 망설이지 않고 기부를 하게 된다면 큰 보람을 느끼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교내 구성원들에게 큰 귀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남(오른쪽) 명예교수와 이해우 총장이 발전기금 전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광웅 주식회사 온라인 대표
일본학과 장학금 2,000만 원 기부

일어일본학과(현 일본학과) 동문 박광웅 주식회사 온라인 대표가 학교 발전기금 2,000만 원을 기부했다. 박 대표는 현재까지 모교에 장학금 등으로 1억 원을 기부했으며, 일본학과는 그동안 31명의 학생에게 총 6,3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박 대표는 “어렵게 공부를 했고 아들도 일문과 출신이기에 모교와 학과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모교 발전을 늘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코로나19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기부에 대한 책임감으로 마음을 다잡고 새벽부터 더 부지런히 열심히 뛰었다”고 말했다. 이해우 총장은 “많이 가진 부자라고 해서 다 기부를 하는 것은 아닌데 무엇보다 값진 기부라는 생각이 든다. 뜻을 잘 받들어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소중히 쓰겠다”고 화답했다.



박광웅(오른쪽) 주식회사 온라인 대표와 이해우 총장이 발전기금 전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영환 (주)코벨 대표이사
학교 발전기금 1,000만 원 기부

최영환 (주)코벨 대표이사가 학교 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 이해우 총장의 산업정보대학원 금속공학과 제자이기도 한 최 대표는 “동아대가 고기능성밸브기술지원센터 등 밸브 테스트로 유명해 앞으로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발돋움 하길 바란다”며 “사업을 열심히 키워서 앞으로도 모교에 기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동아대 연구실에서 이론 기술을 시장으로 진출시킬 L2M 플랫폼이 들어서면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산학협력으로 학교와 기업이 계속 같이 커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은 코벨은 LNG&가스 시장에서 소모되는 모든 극저온 밸브를 모두 국산화해 LNG 선박이나 추진 선박에 납품하고 있다. 최근엔 선박용 LNG 정압설비를 개발해 화제가 되었으며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밸브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최영환(오른쪽) (주)코벨 대표이사와 이해우 총장이 발전기금 전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프로야구 입단 손주환·배세종 선수
야구부 발전기금 기부

프로야구단에 입단 예정인 스포츠탄 야구부 손주환·배세종 선수가 야구부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두 선수는 올해부터 한국프로야구(KBO) 프로야구팀 유니폼을 입게 됐다. NC 다이노스 입단 예정인 손 선수는 야구부 후배들을 위해 발전기금 600만 원을, 롯데자이언츠 입단 예정인 배세종 선수는 890만 원 상당 피칭머신을 기부했다. 발전기금 전달식에서 손 선수는 “동아대에서 좋은 기회를 많이 받아 프로구단에 입단하게 됐다”며 “앞으로 동아대 출신 대표 선수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 선수는 “부산 체육을 대표하는 동아대에서 부산 구단에 입단하게 돼 기쁘다”며 “이 길을 따라 후배들도 학업과 운동을 잘 병행해서 좋은 길을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실력이 월등한 동아대 야구부는 학교의 자랑거리”라며 “프로구단에서 선수들의 활약을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왼쪽부터 우진희 스포츠탄장, 손주환 선수, 이해우 총장, 배세종 선수, 이재현 야구부 감독

DONATION NEWS



재능기부봉사단 '마음을 밝히는 사람들', LED 전등 및 콘센트 교체 봉사활동 펼쳐

동아 재능기부봉사단 10기 '마음을 밝히는 사람들'이 저소득 가정 노후 전등 및 콘센트 교체 지원 활동을 펼쳤다. 동아대 전기공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마음을 밝히는 사람들'은 부산 사하구청과 연계, 9월 16일 부산 사하구 하단동 승학캠퍼스 일대 저소득 가정을 방문해 LED 전등 교체와 노후 콘센트 교체 등을 진행했다. 안전한 멀티탭 사용법을 안내하고 차단 멀티탭도 전달했다.

이번 봉사활동에 참가한 손영기(전기공학과 4) 학생은 "재능기부봉사단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며 큰 보람을 느꼈다"며 "활동에 도움을 주신 학생복지과와 사하구청·서구청 복지정책과에 감사하고 남은 활동도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아대 '마음을 밝히는 사람들'은 지난 2016년 창단된 전기공학과 학생들의 재능기부 봉사단체로 LED 전등교체 외에도 부산 시민 대상 과학체험부스 운영, 어린이 대상 전기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동아대 재능기부봉사단 '마음을 밝히는 사람들' 활동 모습

학군단(ROTC)

장애인 합동결혼식 예도 재능기부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들이 장애인 합동결혼식 예도 재능기부 활동을 했다. 동아대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10명은 (사)부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주최로 한국폴리텍대 부산캠퍼스 학생회관에서 열린 '2023 부산장애인 한마음 대축제 및 합동결혼식'에 참여했다.

'예도(禮刀)'란 결혼식에서 신랑·신부 입장 시 예도를 서로 교차하는 퍼포먼스로 부부의 결혼을 축하하고 빛내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날 재능기부에 참가한 임시연(석당인재학부 3) 사관후보생은 "뜻깊은 활동에 참가해 정말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며 "결혼식을 올린 신랑신부님께 축하 말씀을 드리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백년해로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아대 학군단 예도 재능기부 모습

전자공학과 안검수 학생

대한적십자사 명예장 받아

전자공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안검수(25) 학생이 헌혈 100회를 달성, 대한적십자사에서 수여하는 '명예장'을 받았다. 안검수 학생은 고등학교 1학년이던 지난 2014년 4월 학교 찾아온 헌혈버스에서 헌혈을 시작한 뒤 지난달 20일까지 9년 2개월간 100차례 헌혈했다.

대한적십자사는 헌혈 30회째 '은장', 50회째 '금장', 100회째 '명예장', 200회째 '명예대장', 300회째에 '최고명예대장'을 수여한다.

안 학생은 "개인 시간과 신체를 활용해 타인을 도움 방법이 헌혈이라 생각해 꾸준히 했다"며 "짧으면 20분, 길면 1시간을 써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헌혈 봉사활동을 적극 권한다"고 말했다



안검수 학생이 100회째 헌혈하고 있는 모습

기부로 밝아지는 동아대학교의 미래

지난 시간 동아대는 교육을 혁신하고 인재양성 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해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동아의 미래 발전에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아대학교 후원의 집이란?



동아대학교 발전과 학생 복지 향상을 위해 매월 일정금액의 발전기금을 후원해주는 모범업소를 동아대학교 후원의 집으로 선정합니다.

가입대상

동아대학교를 사랑하고 발전을 기원하는 모든 업소 및 사업체

가입 시 혜택

- 후원의 집 명판 부착
- 매년 명절 쌀·감 등 소정의 기념품 발송
- 기부금 영수증 발급
- 동아대학교 달력 및 소식지 발송

발전기금 기부현황 (2023.7.1~2023.12.31)

법인·단체

(주)HKM	(주)에듀피플스	FT Marine	법률사무소 규리	인사이트 법률사무소
(주)강림씨에스피	(주)온리원	거제리 명가	법무법인 사이	조양실업(주)
(주)건우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유디엔	경영대학원 MBA 55기 동문회	변호사 김병현 법률사무소	주식회사 아이큐랩
(주)대원플러스건설	(주)지앤지코퍼레이션	김태현변호사법률사무소	비케이메탈	주식회사비티엑스모빌리티
(주)메디파워	(주)지엔시	덕천필리피과의원	숲속심리언어상담센터	(주)퓨트로닉
(주)메종건축사사무소	(주)진학사	리우개발 주식회사	식품영양학과 총동문회	지세스성형외과의원
(주)비에프씨씨	(주)코벨	미래넷	윤석중법률사무소	참사랑정형외과
(주)신도시엔지니어링	(주)태영건설	밝은봄안과	은산해운항공(주)	화동수산

후원의 집

(주)울복스	도리원	선미집	어심초밥	카플리스
금호횃집	동경초밥	성일숯불갈비	영의루	투썸플레이스 동아대점
누리마을감자탕	동원장수촌	소담	이모식당	파리바게뜨 부민점
대금삼계탕	밝은눈안과의원	소중환이치과의원	장시영 살롱드뷰티	플로르메디아
대물림 청송집	본가 사하점	송월타울	진선	하단돼지국밥
대훈기획	산정	송이아구짬	초원복국	흥부가
더진국하단점	상록광고기획	아이시티안과의원	초유플라워	

발전기금 기부자 명단

강금순	공권오	김경희	김만재	김성빈	김은진	김진형	나웅	박경만	박순영	박창현	서대관	송강직	심미화	오세경	윤미	이남주	이성숙	이재선	이철오	장명수	정보윤	정호균	진경천	최승환	하상현	홍지원
강기수	공미정	김광관	김명기	김성자	김은혜	김진홍	나진숙	박경미	박순우	박재오	서동근	송대성	심영규	오소라	윤민수	이노성	이성우	이재성	이철우	장문재	정봉석	정호원	진병래	최신애	하승태	홍현두
강나현	공병민	김광열	김명범	김성재	김의도	김진호	남경문	박경식	박승중	박철현	서영교	송명근	심재후	오수연	윤별	이대기	이성욱	이재열	이충섭	장미	정봉식	정효목	진소영	최애은	하승훈	홍해정
강남옥	공윤종	김구	김명수	김성진	김이태	김창석	남광호	박경애	박시윤	박철홍	서미옥	송명근	심형열	오승현	윤별아	이대명	이성호	이재영	이태광	장민우	정석진	정훈	진영주	최영민	하은희	황경원
강다연	공희경	김구연	김명숙	김성태	김익현	김창오	남명구	박경우	박언주	박태위	서석준	송모란	안경순	오승환	윤상우	이대성	이성호	이재욱	이평세	장병일	정선미	정희원	진윤달	최영숙	하정훈	황규철
강대선	공희원	김권민	김명중	김성현	김인자	김창완	남보현	박경원	박영란	박한솔	서성구	송민정	안기범	오영훈	윤상일	이대승	이소연	이재은	이필우	장상목	정성규	제갈진우	진윤홍	최영익	하정훈	황규철
강대성	곽경영	김권호	김명주	김세훈	김일영	김창훈	남상달	박경환	박영일	박한신	서승원	송성훈	안길용	오윤석	윤상현	이도경	이수호	이재현	이해강	장선희	정성욱	조경근	진재운	최영일	하주희	황규홍
강동완	곽기형	김규범	김무현	김소현	김장현	김채수	남상설	박광원	박영일	박해일	서쌍용	송시영	안나현	오은미	윤석기	이도관	이수훈	이재형	이해우	장세훈	정성욱	조구판	진종길	최영주	하진숙	황기식
강동울	곽길수	김규준	김문범	김수미	김재한	김철홍	남승덕	박광춘	박영태	박해지	서영호	송유진	안목련	오응수	윤성국	이도현	이승규	이재훈	이해인	장소라	정성원	조동길	진주한	최영진	하춘목	황남수
강동일	곽도훈	김규한	김미란	김수영	김재현	김춘덕	남승현	박광휘	박영후	박현숙	서우석	송재만	안미혜	오인석	윤성수	이도환	이승용	이재훈	이행진	장소영	정성훈	조문수	진태훈	최영호	하현주	황덕기
강동헌	곽명서	김근민	김민수	김수자	김재현	김춘영	남윤성	박기상	박옥순	박현우	서재유	송정량	안분춘	오임숙	윤성욱	이동근	이승욱	이정관	이현경	장승권	정수진	조문형	차경천	최용수	하형주	황명균
강동훈	곽미진	김근우	김민원	김수정	김재홍	김춘호	남은희	박기현	박용섭	박현태	서정우	송창호	안새봄	오종영	윤성환	이동명	이승은	이정규	이현상	장시영	정수희	조미경	차동환	최우석	한경문	황보한
강래욱	곽선화	김기수	김민정	김수진	김점수	김태근	남재성	박남클	박용성	박형태	서정택	송창희	안성률	오주성	윤세련	이동숙	이승재	이정만	이현	장윤창	정승민	조민성	차병철	최원	한경훈	황부상
강명자	곽승희	김기영	김민찬	김소돌	김정규	김태완	남지연	박동민	박유진	박홍준	서주희	송호근	안영주	오지영	윤아영	이동언	이승준	이정은	이현섭	장재희	정승봉	조범근	차운석	최원준	한동국	황성원
강명호	곽형린	김기원	김민철	김소진	김정대	김태우	남진섭	박명숙	박윤경	박환석	서창현	송홍철	안원석	오진환	윤영준	이동주	이승현	이정재	이현정	장정환	정영균	조봉현	차윤석	최유준	한명석	황성원
강문성	구강인	김기정	김민하	김승민	김정득	김태원	남창우	박미란	박윤호	박효민	서추연	송훈춘	안원선	오현택	윤원용	이동준	이승현	이정화	이현주	장준봉	정영수	조상호	차은희	최은정	한세익	황순민
강봉순	구관희	김기중	김민형	김승우	김정미	김태철	남현정	박미옥	박용호	박희태	서현준	신경미	안정수	오형진	윤은기	이동진	이승형	이정훈	이현호	장지환	정영진	조서백	차재용	최은희	한승호	황영식
강상모	구민수	김길조	김민희	김승일	김정민	김태훈	노강민	박미정	박은경	반성욱	서화영	신경아	안중기	옥민	윤은주	이동철	이승희	이정희	이현희	전경수	정영현	조석봉	차재운	최익준	한영립	황영정
강상훈	구민준	김나량	김범수	김승태	김정석	김태희	노경혜	박미향	박은경	반한용	석민서	신경탁	안태형	오주성	윤세련	이동숙	이승재	이정만	이현	장윤창	정승민	조민성	차병철	최원	한경훈	황부상
강석우	구중환	김나현	김병국	김승호	김정선	김택근	노병환	박미혜	박은정	방대중	선정애	송형기	안승광	오지영	윤아영	이동언	이승준	이정은	이현섭	장재희	정승봉	조범근	차운석	최원준	한동국	황성원
강성원	권기형	김나현	김병권	김시동	김정아	김평	노상우	박민선	박은지	배길석	설남중	신대용	안호성	왕민	윤재준	이명환	이아희	이중서	이혜서	전미라	정원화	조슬기	채석용	최임근	한진섭	황욱연
강성운	권대성	김남국	김병립	김아현	김정한	김하나	노영정	박민성	박일근	배도정	설영자	신미경	안호익	왕민	윤재준	이명환	이아희	이중서	이혜서	전미라	정원화	조슬기	채석용	최임근	한진섭	황욱연
강수진	권동식	김남균	김병수	김애희	김정화	김하이	노영진	박민수	박장식	배동고	설형수	신민	양근석	왕승민	윤정호	이무호	이양복	이중학	이혜진	전선위	정윤정	조애진	채승훈	최재영	함정임	황인성
강영조	권영수	김남수	김병조	김양근	김정희	김향이	노영훈	박병권	박재근	배문형	성기근	신민준	양근혁	왕카이	윤지원	이문정	이연진	이중호	이호재	전성욱	정은서	조양홍	채종덕	최재호	허경행	황자영
강용진	권민지	김남영	김병찬	김양이	김정희	김현	노창현	박병규	박재우	배성류	성낙용	신병준	양동원	용성준	윤진호	이문희	이영근	이중화	이호진	전성웅	정은하	조연원	천상명	최정현	허남인	황재용
강은미	권성길	김남주	김보람	김양희	김중국	김현미	노춘근	박병형	박재우	배성한	성낙창	신병준	양동춘	우동필	윤찬수	이민원	이영민	이중화	이효종	전성현	정의제	조영운	천재림	최정호	허만용	황정후
강은혜	권순일	김남희	김보배	김여원	김중근	김현수	노해성	박복자	박재진	배유일	성백석	신봉삼	양미경	우상국	윤창민	이민준	이영석	이중훈	이효종	전수명	정인성	조영분	천정민	최정훈	허미나	황지연
강이래	권영근	김남희	김보연	김연국	김중록	김현우	노현숙	박봉경	박정국	배주용	성병찬	신부삼	양방만	우연주	윤태영	이민혁	이영웅	이주성	이후림	전아영	정재경	조예본	최광호	최정호	허성란	황지영
강정호	권영근	김달	김보연	김영근	김종묵	김현준	노현욱	박봉철	박정민	배지영	성봉자	신부삼	양방만	우연정	윤태영	이민혁	이영웅	이주성	이후림	전아영	정재경	조예본	최광호	최정호	허성란	황지영
강정화	권영근	김달호	김보현	김영민	김종식	김현중	노희관	박상석	박정영	배진경	성세환	신상열	양성동	우진희	윤현우	이병문	이영호	이주영	이희성	전연기	정재선	조용복	최규환	최준환	허연철	황지현
강중훈	권영삼	김대경	김봉진	김영민	김종식	김현진	도동오	박상수	박종귀	배태섭	성수현	신상용	양성욱	원동화	이가영	이병선	이영환	이주현	이희원	전재국	정재현	조용언	최금찬	최지수	허영민	황희정
강주용	권영성	김대륙	김상봉	김영선	김종욱	김현희	라광현	박상아	박종민	배한숙	성이용	신상원	양수철	원창선	이강배	이보경	이옥부	이준석	이희원	전재혁	정재현	조우숙	최금화	최창윤	허영철	황영호
강준원	권영준	김대영	김상열	김영우	김종혁	김형기	류관호	박상욱	박종선	배형우	성지현	신상의	양신우	위순신	이강욱	이보람	이윤발	이준숙	이희정	전정순	정종혁	조은	최기혁	최창현	허영호	황영호
강지연	권영탁	김대영	김상열	김영일	김종현	김형록	류단비	박상현	박종욱	배홍준	손경석	신성현	양지경	유경규	이경민	이보희	이윤석	이준홍	이희정	전찬권	정종희	조장우	최대성	최케이트고은	허재복	황영호
강지현	권오근	김대옥	김상진	김영준	김주영	김형빈	류미향	박상현	박종현	백경민	손민재	신숙영	양주순	유경준	이경열	이상엽	이용은	이중경	임미경	전호정	정지민	조현기	최민환	최현중	허진혁	황영호
강태훈	권우정	김대준	김상태	김영하	김주찬	김형수	류순식	박상현	박주상	백경원	손민재	신숙욱	양주위	유동일	이경용	이상완	이홍희	이중현	임병찬	전효철	정지분	조합래	최미숙	최현중	허진혁	황영호
강태훈	권재영	김대중	김상현	김영호	김준석	김형진	류승훈	박상홍	박주현	백상훈	손병구	신영아	양혜리	유병철	이경운	이상용	이용건	이지나	임상호	정강재	정진아	조현선	최미옥	최현태	허창환	황영호
강하승	권주영	김대진	김상현	김영환	김준우	김형철	류용주	박서준	박준석	백승우	손상현	신영완	어주영	유성호	이경학	이상용	이원구	이지연	임석순	정경미	정진웅	조현아	최민아	최형림	허태희	황영호
강형모	권태정	김대현	김상호	김영훈	김준찬	김혜경	류윤아	박석강	박준혁	백영기	손석주	신용우	엄범섭	유수영	이경환	이상원	이원빈	이지영	임석준	정경환	정진희	조현준	최민철	최형열	허형록	황영호
강혜진	권혁안	김대환	김석	김완중	김지나	김혜숙	류윤현	박선홍	박준호	백치승	손정수	신용호	엄예연	유승현	이경훈	이상진	이원호	이지옥	임시연	정규식	정찬식	조형열	최백	최혜경	허혜숙	황영호
강효	권혁찬	김대환	김석	김완중	김지나	김혜숙	류윤현	박선홍	박준호	백치승	손정수	신용호	엄예연	유승현	이경훈	이상진	이원호	이지옥	임시연	정규식	정찬식	조형열	최백	최혜경	허혜숙	황영호
계민수	권현규	김덕열	김석지	김용준	김지만	김혜영	류지희	박선희	박준홍	백희자	손정우	신윤호	엄예연	유재룡	이경희	이상진	이원희	이지원	임옥근	정남기	정충훈	조혜영	최병욱	최호림	현승용	황영호
고상만	권현안	김덕현	김석현	김우남	김지숙	김혜정	문건주	박성범	박지연	법인지	손정환	신재봉	여승현	유재욱	이광식	이상호	이은남	이지윤	임윤경	정달식	정치영	조홍률	최병일	최호석	현안나	황영호
고상석	권혜민	김도경	김선경	김우현	김지연	김혜진	문동욱	박성빈	박지용	변상민	손중윤	신재욱	여태규	유재욱	이광식	이상호	이은숙	이지혜	임정식	정대성	정태호	주명희	최보라	최홍규	현연수	황영호
고성광	권혜원	김도한	김선경	김원재	김지현	김환	문병진	박성일	박지은	변선영	손주환	신정현	여호근	유정욱	이국환	이서윤	이은영	이진	임지아	정덕업	정태화	주석민	최보훈	최홍조	현창욱	황영호
고성원	권효철	김도훈	김선규	김위근	김지혜	김희경	문상진	박성제	박지혜	변성우	손창현	신정환	연진홍	유재은	이권희	이서정	이은임	이진걸	임지현	정동열	정해영	주성식	최불환	최희선	형민아	황영호
고수현	권희진	김동섭	김선미	김윤경	김진경	김효성	문선영	박성혁	박지혜	변성철	손재훈	신중섭	염정국	유현우	이귀현	이석용	이은정	이진규	임지혜	정득현	정해용	주인석	최상석	최희원	홍기봉	황영호
고여경	기성훈	김동섭	김선익	김윤정	김진길	김효준	문영주	박세영	박진익	변성호	손태중	신지윤	염창홍	유형욱	이기성	이선우	이은주	이진우	임진우	정무섭	정현식	주인석	최상운	추상욱	홍남식	황영호
고영남	김가은	김동수	김선희	김윤진	김진석	김훈	문요한	박세준	박진영	변영철	손판도	신창균	오광욱	유호재	이기혁	이선전	이익선	이진태	임현석	정미숙	정현욱	주재운	최서현	추성호	홍상혁	황영호
고영라	김건욱	김동우	김성기	김윤희	김진수	김희경	문진호	박소연	박차원	변영학	손하은	신창균	오구환	윤기연	이기환	이선주	이인용	이찬연	임희규	정미영	정현우	주차돈	최철만	탁규만	홍서영	황영호
고유석	김건우	김동준	김성동	김윤희	김진순	김희돈	문철주	박소연	박찬규	변진해	손현준	신현범	오민홍	윤갑식	이기훈	이선하	이일성	이창경	임형준	정민	정현욱	주현욱	최선미	표용희	홍순권	황영호
고윤성	김경우	김동진	김성렬	김은경	김진용	김희선	문환용	박소영	박창구	변형석	손현진	신호민	오상민	윤경규	이나경	이선희	이장욱	이창수	임혜연	정민석	정현진	주형준	최성문	하고운	홍순환	황영호
고재연	김경태	김동환	김성률	김은영	김진욱	김희연	민영기	박수진	박창석	변현숙	손현태	신훈규	오선문	윤금주	이나운	이선희	이창호	이창울	임혜진	정민준	정형일	지강이	최성수	하광봉	홍영습	황영호
고홍수	김경화	김동훈	김성림	김은주	김진웅	김희준	민혜숙	박수천	박창순	사정훈	손형수	신홍기	오성배	윤대원	이난희	이성구	이재동	이창훈	장기철	정민호	정혜관	지선자	최수호	하기영	홍용석	황영호
공경란	김경희	김두진	김성목	김은주	김진원	나미타파	박경렬	박수호	박창열	서광민	손홍락	신희진	오성용	윤만희	이남경	이성민	이재민	이철	장기현	정병수	정호광	지선자	최승환	하민호	홍자영	황영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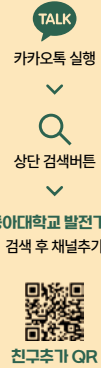
•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

필수수집정보	기부금 영수증 발급, 기부자 예우를 위한 필수 정보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비동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약정금액, 납입방법, 기부목적	
선택수집정보	학교와의 관계에 따른 맞춤형 예우 용도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비동의
	학교와의관계	
	학교 소식지 발송, 감사선물 발송, 행사 안내 등 기부자 예우 용도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비동의
	성명, 연락처, 주소	
제3자 제공정보	제공 받는 자 : 금융결제원(자동이체 납입 시)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비동의
	성명, 생년월일, 은행명, 계좌번호 결제일자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준영구 (기부자의 자료 삭제 요청 시 삭제 가능)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필수수집정보 수집에 미동의 할 경우 익명의 기부자로 등록되어 기부금 영수증 발급, 기부내역 조회가 불가하며 기부자 예우서비스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약정방법

약정서 작성 후 사진으로 촬영해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문의 051-200-6012
팩스 051-200-6015
이메일 fund@dau.ac.kr

동아대학교 발전기금 약정서

• 기본정보

성명(기관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관계	<input type="checkbox"/> 일반 <input type="checkbox"/> 동문 (입학연도 / 학사 과정) <input type="checkbox"/> 학부모 <input type="checkbox"/> 법인 <input type="checkbox"/> 교직원		

• 약정정보

일시납 문의 051-200-6012

약정금액		매월 () 만 원
기탁용도	<input type="checkbox"/> 학교에 위임 <input type="checkbox"/> 학과에 기부 (학과)	

• 자동이체 정보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출금일	<input type="checkbox"/> 10일 <input type="checkbox"/> 2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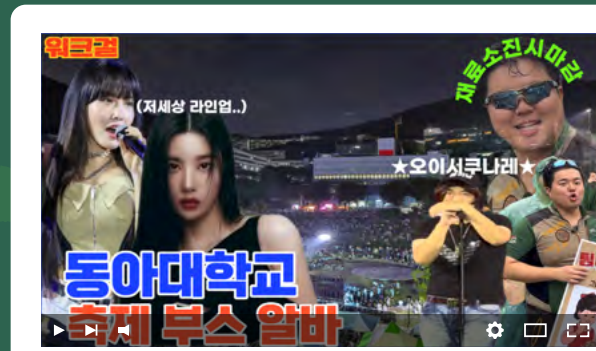
20 년 월 일

기부권유자 : _____

약정자 : _____ (인)

SPOTLIGHT DONG-A SNS

동아인이 울고 웃고 고민했던 바로 그 순간&이슈를 소개합니다.



워크걸 : 축제부스 알바편 🥰
#대학축제 #대동제 #축제부스 #알바



교수님과 송편 만들기 🥰
#추석 #추석유래 #송편만들기 #한국어문학과



What's in ROTC's bag?!
#ROTC #학군단 #국군의날



수능응원 대작전 ✨
#수학능력검정시험 #2024수능 #수능응원

개교 77주년 기념 특별 전시 "부산전차" 관람후기 🥰

#석당박물관
#부산전차
#개교77주년
#특별전시
#부민캠퍼스
#임시수도기념거리

DONG-A ISSUE FOCUS
개교 77주년 기념 특별전시
부산전차 관람 후기

2023 일자리박람회 🥰

#지자체
#일자리박람회
#채용설명회
#자기소개서
#취업박람회
#면접메이크업

DONG-A ISSUE FOCUS
대학과 지자체가 함께하는
일자리 박람회 후기

동아 DAU:M

교육 학생성장 지원체계 구축

연구 미래대응 연구역량 확보

산학협력 L2M 가치 창출

대학경영 DAU네트워크 가치 창조

글로벌 글로벌 위상 및 브랜드 정립

DK 지역공유/협력 디지털 플랫폼 구현



승학캠퍼스 49315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550번길 37(하단동)

부민캠퍼스 49236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225(부민동 2가)

구덕캠퍼스 49201 부산광역시 서구 대신공원로 32(동대신동 3가)

www.donga.ac.kr

블로그 blog.naver.com/donga_pr_bot

페이스북 facebook.com/dongauniv

인스타그램 instagram.com/donga_univ

유튜브 youtube.com/c/dongauniversity1946